

2005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김두화* · 박종필** · 박정환***

〈 목 차 〉	
I. 서 론	4. 기대하는 교수상 및 대인관계
II. 조사대상 및 방법	5. 가치관 및 사회관 관련
1. 조사대상	6. 상담·봉사센터 관련
2. 조사도구 및 내용	IV. 요약 및 결론
3. 조사실시 및 자료처리	1. 요약
III. 결과분석 및 해석	2. 결론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참고문헌
2. 대학생활 관련	Abstract
3. 대학 및 학부(과) 선택 관련	

I. 서 론

현대사회가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고등학교 졸업생수 보다 대학의 입학생수가 더 많아진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표면화 되고 있으며, 학생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인해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폐교 위기에 빠진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다(소황옥외 2인, 2004).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현실화 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국·공립 대학 통합에 따른 각종 지원책들을 통해 국·공립대학의 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학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찾아볼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 교수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 재건을 목표로 하여 국립대학의 재편성 및 통합을 통해 국립대학의 수를 12개로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21세기에 100개 대학을 세계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인 '211 공정'을 통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총 733개의 대학을 288개 대학으로 통합 및 합병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종합대학화 및 중점대학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세계일보, 2004).

이러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및 외국대학들의 변화 노력에 위기감을 느낀 각 대학들은 특성화를 내세우면서 교육의 질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입학정원의 미달사태를 막기 위해 신입생 유치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소황옥외 2인, 2004).

현재 우리 제주대학교 역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지역의 중점대학으로 안주하지 않고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타 대학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상담·봉사센터도 예외는 아니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의 상담·봉사센터에서는 2005학년도 신입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일반적 사항,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 대학생활, 대학의 이미지와 자긍심, 학과 선택의 과정 및 교수 등과의 관계, 가치관과 상담·봉사센터의 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여 향후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연구 및 행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제주대학교의 2005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 중 설문에 응답한 1,843명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41명을 제외한 1,80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한 신입생들의 성별, 단과대학별 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성별, 대학별 조사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대 학	인 문 대 학	305	16.9
	법 정 대 학	192	10.7
	경 상 대 학	288	16.0
	사 범 대 학	121	6.7
	생 명 자 원 과 학 대 학	75	4.2
	해 양 과 학 대 학	190	10.5
	자 연 과 학 대 학	301	16.7
	공 과 대 학	313	17.4
	의 과 대 학	17	0.9
	전 체		1,802
성 별	남 자	979	53.1
	여 자	823	44.7
	전 체	1,802	100

* 소속 대학 및 성별에 표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각 항목의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이전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출생년도, 생활 근거지, 입학 후 거주할 곳, 재수경험의 여부와 유형, 보호자와의 관계, 부모의 생존여부, 보호자 학력 및 직업, 가정 분위기, 부모에 대한 느낌 및 관심도, 월평균 용

돈, 용돈의 주사용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자신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

2) 대학생활 관련

대학진학의 목적, 대학생활 중 가장 하고 싶은 일,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예상되는 문제점, 기숙사 입사에 대한 희망여부, 아르바이트 욕구도 및 원하는 이유, 장학금의 필요성과 그 이유, 갖고 싶은 직종,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와 하고 싶지 않은 이유

3) 대학 및 학부(과) 선택 관련

본교에 대한 인식, 본교를 지원한 이유, 본교 지원시 정보의 수집경로, 타 시·도 학생들에 대한 본교의 홍보방법, 학부(과)를 지망한 시기, 자긍심의 정도,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적합도, 전과 및 복수전공에 대한 인지도, 복수전공을 원하는 대학 및 이유

4) 기대하는 교수상 및 대인관계 관련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강의방법

5) 가치관 및 사회관 관련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대학생으로서 갖춰야할 자격,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제주도민이 겪는 문제점

6) 상담 ·봉사센터 관련

대학생활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주요 상담원, 상담·봉사센터에서의 상담 희망 여부 및 상담내용, 받고 싶은 심리검사,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 참여의사 및 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

3. 조사실시 및 자료처리

본 조사는 2005년 2월, 제주대학교 신입생 전체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학부(과)별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설문응답들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및 해석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1) 출생년도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출생년도별 분포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86년 출생이 71.1%로 가장 많았고, '87년 이후 출생자가 18.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학별 출생년도 분포로 전체적인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사범대학만 약간 예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사범대에서도 '86년 출생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85년 출생자의 비율이 17.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교직 선호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86년 이후에 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출생년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79년 이전	6 (2.0)	3 (1.6)	7 (2.4)	1 (0.8)	-	1 (0.5)	6 (2.0)	-	-	14 (1.4)	10 (1.2)	24 (1.3)
'80년	-	-	-	3 (2.5)	-	-	1 (0.3)	-	-	2 (0.2)	2 (0.2)	4 (0.2)
'81년	1 (0.3)	-	5 (1.7)	-	-	-	1 (0.3)	2 (0.6)	-	7 (0.7)	2 (0.2)	9 (0.5)
'82년	3 (1.0)	4 (2.1)	2 (0.7)	1 (0.8)	1 (1.3)	2 (1.1)	1 (0.3)	5 (1.6)	-	18 (1.8)	1 (0.1)	19 (1.1)
'83년	1 (0.3)	1 (0.5)	1 (0.3)	4 (3.3)	1 (1.3)	-	1 (0.3)	1 (0.3)	-	7 (0.7)	3 (0.4)	10 (0.6)
'84년	5 (1.6)	-	6 (2.0)	6 (4.8)	1 (1.3)	-	4 (1.3)	-	-	8 (0.8)	14 (1.7)	22 (1.2)
'85년	18 (5.9)	4 (2.1)	15 (5.1)	21 (17.4)	2 (2.7)	3 (1.6)	20 (6.6)	6 (1.9)	1 (5.9)	50 (5.1)	40 (4.9)	90 (5.0)
'86년	208 (68.2)	149 (77.6)	194 (67.4)	66 (54.5)	49 (65.3)	144 (75.8)	212 (70.4)	249 (79.6)	10 (58.8)	693 (70.8)	588 (71.4)	1,281 (71.1)
'87년 이후	63 (20.7)	30 (15.6)	58 (20.1)	19 (15.7)	21 (28.0)	39 (20.5)	54 (17.9)	50 (16.0)	6 (35.3)	178 (18.2)	162 (19.7)	340 (18.9)
무응답	-	1 (0.5)	-	-	-	1 (0.5)	1 (0.3)	1 (0.3)	-	2 (0.2)	1 (0.1)	3 (0.2)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2) 생활 근거지

신입생들의 생활근거지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제주도 지역과, 서울, 인천 및 경기, 충청북도 등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의 59.9%가 제주시 출신이며, 그 다음으로 서귀포시가 12.5%. 북제주군이 10.4%, 그리고 남제주군이 8.3%의 순이었으며, 신입생의 91.1%가 제주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 출신의 비율은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들 중에서는 부산, 울산 및 경남 지역이 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리적인 근접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생활 근거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제 주 시	188 (61.6)	122 (63.5)	166 (57.6)	74 (61.2)	46 (61.3)	114 (60.0)	156 (51.8)	203 (64.9)	10 (58.8)	561 (57.3)	518 (62.9)	1,079 (59.9)
서 귀 포 시	40 (13.1)	31 (16.1)	35 (12.2)	13 (10.7)	10 (13.3)	18 (9.5)	43 (14.3)	33 (10.5)	3 (17.6)	124 (12.7)	102 (12.4)	226 (12.5)
북 제 주 군	38 (12.5)	18 (9.4)	22 (7.6)	9 (7.4)	4 (5.2)	27 (14.2)	26 (8.6)	40 (12.8)	3 (17.6)	107 (10.9)	80 (9.7)	187 (10.4)
남 제 주 군	26 (8.5)	17 (8.9)	16 (4.9)	7 (5.8)	6 (8.0)	20 (10.5)	29 (9.6)	31 (9.9)	-	93 (9.5)	57 (6.9)	150 (8.3)
서 울	3 (1.0)	1 (0.5)	4 (1.4)	2 (1.7)	1 (1.3)	1 (0.5)	3 (1.0)	1 (0.3)	-	11 (1.1)	5 (0.6)	16 (0.9)
인천및경기	1 (0.3)	1 (0.5)	5 (1.7)	4 (3.3)	2 (2.7)	4 (2.1)	6 (2.0)	1 (0.3)	-	15 (1.5)	9 (1.1)	24 (1.3)
충 청 북 도	-	-	1 (0.3)	-	-	-	2 (0.7)	-	-	-	3 (0.4)	3 (0.2)
대전및충남	-	1 (0.5)	-	-	-	2 (1.1)	2 (0.7)	-	-	3 (0.3)	2 (0.2)	5 (0.3)
대구및경북	4 (1.3)	-	6 (2.1)	-	1 (1.3)	-	10 (3.3)	2 (0.6)	-	15 (1.5)	8 (1.0)	24 (1.3)
부 산, 울 산 및 경 남	2 (0.7)	1 (0.5)	22 (7.6)	9 (7.4)	2 (2.7)	3 (1.6)	14 (4.7)	2 (0.6)	1 (5.9)	33 (3.4)	23 (2.8)	56 (3.1)
전 라 북 도	1 (0.3)	-	-	-	-	-	2 (0.7)	-	-	1 (0.1)	2 (0.2)	3 (0.2)
광주및전남	2 (0.7)	-	12 (4.2)	3 (2.5)	3 (4.0)	-	7 (2.3)	-	-	15 (1.5)	12 (1.5)	27 (1.5)
해 외	-	-	1 (0.3)	-	-	-	-	-	-	-	1 (0.1)	1 (0.1)
무 응 답	-	-	-	-	-	1 (0.5)	1 (0.3)	-	-	1 (0.1)	1 (0.1)	2 (0.1)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3) 입학 후 거주형태

신입생들의 입학 후 거주형태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본가가 6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숙사가 13.8%, 자취가 12.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기숙사에 입주 하고 싶어 하는 남학생(16.3%)의 비율이 여학생(10.8)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별로는 공과대 75.7%로 본가 거주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이어서 해양대 71.6%, 인문대 70.8%의 순으로 본가 거주 예정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상대(21.9%)와 사범대 (19.0%)는 타 단과대학들에 비해 기숙사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입학 후 거주형태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본 가	216 (70.8)	132 (68.8)	181 (62.8)	82 (67.8)	53 (70.7)	136 (71.6)	197 (65.4)	237 (75.7)	12 (70.6)	671 (68.5)	575 (69.9)	1,246 (69.1)
친척 및 친 지	20 (6.6)	5 (2.6)	6 (2.1)	3 (2.5)	1 (1.3)	13 (6.8)	9 (3.0)	8 (2.6)	1 (5.9)	27 (2.8)	39 (4.7)	66 (3.7)
자 취	40 (13.1)	32 (16.7)	35 (12.1)	12 (9.9)	7 (9.3)	24 (12.6)	40 (13.3)	38 (12.1)	3 (17.6)	114 (11.6)	117 (14.2)	231 (12.8)
하 숙	1 (0.3)	-	3 (1.0)	1 (0.8)	-	-	1 (0.3)	3 (1.0)	-	7 (0.7)	2 (0.2)	9 (0.5)
기 숙 사	28 (9.2)	23 (12.0)	63 (21.9)	23 (19.0)	14 (18.7)	17 (8.9)	53 (17.6)	27 (8.6)	1 (5.9)	160 (16.3)	89 (10.8)	249 (13.8)
무 응 답	-	-	-	-	-	-	1 (0.3)	-	-	-	1 (0.1)	1 (0.1)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4) 재수경험의 여부와 유형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재수여부 및 유형은 아래의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의 90.7%가 재수를 하지 않고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재수를 한 경우는 9.3%에 불과하였으며, 이중 1년 재수가 7.3%로 재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91.7%)이 남학생(89.8%) 보다 재수경험이 없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1년 재수 경험은 남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해양대 97.9%, 공과대 96.5%, 그리고 법정대 95.8%의 순으로 재수를 하지 않고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재수 경험의 비율은 사범대 28.5%, 다음으로 의과대가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수경험의 비율은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 및 직업관련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4> 재수경험의 여부와 유형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없 다	281 (92.1)	184 (95.8)	258 (89.6)	79 (65.3)	70 (93.3)	186 (97.9)	259 (86.0)	302 (96.5)	15 (88.2)	879 (89.8)	755 (91.7)	1,634 (90.7)
1년 재수	21 (6.9)	7 (3.6)	25 (8.7)	35 (28.5)	3 (4.0)	3 (1.6)	27 (9.0)	9 (2.9)	2 (11.8)	82 (8.4)	50 (6.1)	132 (7.3)
2년 재수	2 (0.7)	-	1 (0.3)	5 (4.1)	2 (2.7)	-	5 (1.7)	1 (0.3)	-	5 (0.5)	11 (1.3)	16 (0.9)
3년이상 재수	-	1 (0.5)	2 (0.7)	2 (1.7)	-	1 (0.5)	4 (1.3)	1 (0.3)	-	10 (1.0)	1 (0.1)	11 (0.6)
검정고시	1 (0.3)	-	1 (0.3)	-	-	-	5 (1.7)	-	-	3 (0.3)	4 (0.5)	7 (0.4)
무응답	-	-	1 (0.3)	-	-	-	1	-	-	-	2 (0.2)	2 (0.1)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5) 보호자와의 관계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의 보호자의 대부분은 부모(93.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편부편모가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항목들은 0.5% 내외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부모가 보호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94.7%)이 남학생(91.8%)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편부편모인 비율은 남학생(5.2%)이 여학생(3.9)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아도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타 대학에 비해 해양대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모님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87.9%), 편부편모인 비율(8.9%)이 높게 나타났다.

<표 1-5> 보호자와의 관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부 모 님	285 (93.4)	180 (93.8)	262 (91.0)	113 (93.4)	74 (98.7)	167 (87.9)	282 (93.7)	298 (95.2)	17 (100)	899 (91.8)	779 (94.7)	1,678 (93.1)
편부편모	11 (3.6)	9 (4.7)	18 (6.3)	6 (5.0)	-	17 (8.9)	12 (4.0)	10 (3.2)	-	51 (5.2)	32 (3.9)	83 (4.6)
형·누나	2 (0.7)	-	1 (0.3)	-	-	1 (0.5)	1 (0.3)	2 (0.6)	-	6 (0.6)	1 (0.1)	7 (0.4)
조 부 모	2 (0.7)	-	-	1 (0.8)	1 (1.3)	4 (2.1)	2 (0.7)	-	-	8 (0.8)	2 (0.2)	10 (0.6)
친 척	1 (0.3)	1 (0.5)	2 (0.7)	1 (0.8)	-	1 (0.5)	-	1 (0.3)	-	4 (0.4)	3 (0.4)	7 (0.4)
기 타	4 (1.3)	1 (0.5)	4 (1.4)	-	-	-	1 (0.3)	2 (0.6)	-	7 (0.7)	5 (0.6)	12 (0.7)
무 응 답	-	1 (0.5)	1 (0.3)	-	-	-	3 (1.0)	-	-	4 (0.4)	1 (0.1)	5 (0.3)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6) 부모의 생존여부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부모의 생존여부는 아래의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1-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의 대부분(84.9%)은 부모님 모두가 생존해 계시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경우로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가 5.2%, 양친이 이혼한 경우가 4.8%, 그리고 현재 양친이 별거중인 경우가 3.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 없이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단과대학 별로도 비슷한 비율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6> 부모의 생존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양친 생존 동거	255 (83.6)	161 (83.9)	238 (82.6)	100 (82.6)	69 (92.0)	155 (81.6)	262 (87.0)	272 (86.9)	17 (100)	826 (84.4)	703 (85.4)	1,529 (84.9)
양 친 생 존 별 거 중	9 (2.9)	12 (6.3)	8 (2.8)	5 (4.1)	3 (4.0)	10 (5.3)	5 (1.7)	9 (2.9)	-	37 (3.8)	24 (2.9)	61 (3.4)
양친 생존 이혼	18 (5.9)	5 (2.6)	15 (5.2)	7 (5.8)	3 (4.0)	10 (5.3)	14 (4.7)	14 (4.5)	-	45 (4.6)	41 (5.0)	86 (4.8)
양친 모두 사망	2 (0.7)	1 (0.5)	4 (1.4)	-	-	-	2 (0.7)	-	-	5 (0.5)	4 (0.5)	9 (0.5)
부 사 망	16 (5.2)	10 (5.2)	19 (6.6)	7 (5.8)	-	15 (7.9)	12 (4.0)	14 (4.5)	-	53 (5.4)	40 (4.9)	93 (5.2)
모 사 망	3 (1.0)	2 (1.0)	3 (1.0)	2 (1.7)	-	-	5 (1.7)	2 (0.6)	-	7 (0.7)	10 (1.2)	17 (0.9)
모 른 다	1 (0.3)	1 (0.5)	1 (0.3)	-	-	-	-	2 (0.6)	-	4 (0.4)	1 (0.1)	5 (0.3)
무 응 답	1(0.3)	-	-	-	-	-	1 (0.3)	-	-	2 (0.2)	-	2 (0.1)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7) 보호자의 학력

2005학년도 신입생의 보호자들의 학력 분포는 아래의 <표 1-7>과 같다. <표 1-7>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보호자의 학력은 고졸이 58.5%, 대졸이 30.9% 그리고 대학원이 6.2%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39.6%)들이 대졸이상의 보호자를 둔 경우가 남학생(35.0%)들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자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의 비율은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60.5%, 여학생 56.7%).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체적인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사범대(49.6%)와 의과대(41.2%)만은 보호자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가 타 단과대학에 비해 상당히 낮았고, 반대로 다른 단과대학과는 달리 보호자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이상인 비율이 보호자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비율 보다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범대 49.6%, 의과대 58.9%).

<표 1-7> 보호자의 학력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고 졸 이 하	176 (57.7)	123 (64.1)	175 (60.8)	60 (49.6)	43 (57.3)	108 (56.8)	170 (56.5)	197 (62.9)	7 (41.2)	592 (60.5)	467 (56.7)	1,059 (58.8)
대 학교 중 퇴 및 졸 업	94 (30.8)	49 (25.5)	92 (31.9)	41 (33.9)	21 (28.0)	63 (33.2)	101 (33.6)	88 (28.1)	8 (47.1)	281 (28.7)	276 (33.5)	557 (30.9)
대 학 원 이 상	23 (7.5)	17 (8.9)	10 (3.5)	19 (15.7)	8 (10.7)	5 (2.6)	18 (6.0)	10 (3.2)	2 (11.8)	62 (6.3)	50 (6.1)	112 (6.2)
기 타	12 (3.9)	3 (1.6)	10 (3.5)	1 (0.8)	1 (1.3)	14 (7.4)	11 (3.7)	18 (5.8)	-	43 (4.4)	27 (3.3)	70 (3.9)
무 응 답	-	-	1 (0.3)	-	2 (2.7)	-	1 (0.3)	-	-	1 (0.1)	3 (0.4)	4 (0.2)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8) 보호자의 직업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보호자의 직업분포는 아래의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1-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호자의 직업 비율은 3차 산업이 50.8%, 1차 산업이 20.5%, 그리고 2차 산업이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신입생들이 제주도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직업현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보호자의 직업이 3차 산업인 경우가 48.6%와 53.5%로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보호자의 직업이 3차 산업인 비율이 더 높았고, 반면에 1차 산업인 비율은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3차 산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비율은 경상대 59.4%, 사범대 58.7%, 인문대 5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대의 경우,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40.0%로 단과대학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1차 산업의 비율은 24.7%로 공과대(25.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보호자의 직업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1차산업	59 (19.3)	42 (21.9)	52 (18.1)	16 (13.2)	16 (21.3)	47 (24.7)	53 (17.6)	81 (25.9)	4 (23.5)	221 (22.6)	149 (18.1)	370 (20.5)
2차산업	31 (10.2)	21 (10.9)	33 (11.5)	11 (9.1)	9 (12.0)	28 (14.7)	44 (14.6)	46 (14.7)	2 (11.8)	127 (13.0)	98 (11.9)	225 (12.5)
3차산업	165 (54.1)	103 (53.6)	171 (59.4)	71 (58.7)	30 (40.0)	75 (40.0)	157 (52.2)	134 (42.8)	8 (47.1)	476 (48.6)	440 (53.5)	916 (50.8)
기 타	48 (15.7)	25 (13.0)	32 (11.1)	22 (18.2)	14 (18.7)	35 (18.9)	45 (15.0)	51 (16.3)	3 (17.6)	147 (15.0)	129 (15.7)	276 (15.3)
무 응 답	2 (0.7)	1 (0.5)	-	1 (0.8)	6 (8.0)	2 (1.1)	2 (0.7)	1 (0.3)	-	8 (0.8)	7 (0.9)	15 (0.8)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9) 가정의 분위기

신입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가정의 분위기는 <표 1-9>에 제시되어 있다. <표 1-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82.2%) 자신이 속한 가정이 비교적 화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화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79.2%)들 보다는 여학생들이(85.8%) 더 가정이 화목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은 '그저 그렇다'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가정이 '매우 화목'하거나 '비교적 화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가장 높았고(94.1%), 그 뒤를 이어 인문대 86.9%, 경상대 85.8%, 생명대 8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교적 불화' 또는 '매우 불화'라고 응답한 비율은 생명대가 6.7%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해양대 3.7%, 법정대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대의 경우에는 '비교적 불화' 또는 '매우 불화'라고 응답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가정의 분위기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화목	134 (43.9)	61 (31.8)	114 (39.6)	40 (33.1)	30 (40.0)	72 (37.9)	104 (34.6)	97 (31.0)	5 (29.4)	327 (33.4)	330 (40.1)	657 (36.5)
비교적 화목	131 (43.0)	93 (48.4)	133 (46.2)	58 (47.9)	31 (41.3)	79 (41.6)	139 (46.2)	149 (47.6)	11 (64.7)	448 (45.8)	376 (45.7)	824 (45.7)
그저 그렇다	31 (10.2)	32 (16.7)	35 (12.2)	20 (16.5)	9 (12.0)	32 (16.8)	51 (16.9)	59 (18.8)	1 (5.9)	177 (18.1)	93 (11.3)	270 (15.0)
비교적 불화	4 (1.3)	3 (1.6)	3 (1.0)	3 (2.5)	3 (4.0)	3 (1.6)	4 (1.3)	5 (1.6)	-	13 (1.3)	15 (1.8)	28 (1.6)
매우 불화	3 (1.0)	3 (1.6)	3 (1.0)	-	-	3 (1.6)	3 (1.0)	1 (0.3)	-	10 (1.0)	6 (0.7)	16 (0.9)
무 응 답	2 (0.7)	-	-	-	2 (2.7)	1 (0.5)	-	2 (0.6)	-	4 (0.4)	3 (0.4)	7 (0.4)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10) 부모에 대한 느낌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부모에 대한 느낌은 아래의 <표 1-10>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1-1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51.3%의 학생들은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다소 편안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31.7%로 나타났으며, '다소 불편' 또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각각 2.1%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83.0%) 자신의 부모님 대해 대체로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45.3%) 보다 여학생(58.6%)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편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28.1%) 보다 남학생(34.7%)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 '다소 불편' 및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매우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의과대(76.5%)였으며, 뒤를 이어 인문대 60.7%, 경상대 54.2%, 사범대 5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은 공과대가 34.5%로 가장 높았고, 자연대 33.9%, 생명대 3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가 '매우 편안' 및 '다소 편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가장 높았고(100.0%), 인문대 87.9%, 사범대 8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다소 불편' 또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범대가 가장 높았으며(5.0%), 뒤를 이어 법정대 4.1%, 생명대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대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0> 부모에 대한 느낌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편안	185 (60.7)	96 (50.0)	156 (54.2)	61 (50.4)	35 (46.7)	89 (46.8)	147 (48.8)	143 (45.7)	13 (76.5)	443 (45.3)	482 (58.6)	925 (51.3)
다소 편안	83 (27.2)	55 (28.6)	92 (31.9)	39 (32.2)	25 (33.3)	63 (33.2)	102 (33.9)	108 (34.5)	4 (23.5)	340 (34.7)	231 (28.1)	571 (31.7)
그저 그렇다	26 (8.5)	32 (16.7)	33 (11.5)	15 (12.4)	10 (13.3)	30 (15.8)	46 (15.3)	56 (17.9)	-	160 (16.3)	88 (10.7)	248 (13.8)
다소 불편	5 (1.6)	6 (3.1)	5 (1.7)	6 (5.0)	3 (4.0)	5 (2.6)	2 (0.7)	6 (1.9)	-	23 (2.3)	15 (1.8)	38 (2.1)
매우 불편	3 (1.0)	2 (1.0)	1 (0.3)	-	-	3 (1.6)	2 (0.7)	1 (0.3)	-	8 (0.8)	3 (0.4)	11 (0.6)
무 응답	3 (1.0)	1 (0.5)	1 (0.3)	-	2 (2.7)	-	2 (0.7)	-	-	5 (0.5)	4 (0.5)	9 (0.5)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11) 부모의 관심도

2005학년도 신입생들에 부모의 관심도는 아래의 <표 1-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6.8%). '다소' 또는 '매우' 관심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매우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여학생들의 비율이 남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신에 대해 부모가 '매우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은 인문대가 가장 높았고(55.1%), 이어서 의과대 52.9%, 생명대 52.0%, 자연대 5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소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공과대가 48.6%로 가장 높았고, 해양대 44.2%, 경상대 4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이상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상대가 88.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사범대가 87.6%, 인문대 87.2%, 의과대 8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모가 관심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생명대가 4.0%로 가장 높았고, 자연대 3.0%, 해양대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1> 부모의 관심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관심이 많은 편	168 (55.1)	93 (48.4)	133 (46.2)	59 (48.8)	39 (52.0)	79 (41.6)	151 (50.2)	122 (39.0)	9 (52.9)	445 (45.5)	408 (49.6)	853 (47.3)
다소 관심이 많은 편	98 (32.1)	72 (37.5)	121 (42.0)	47 (38.8)	25 (33.3)	84 (44.2)	106 (35.2)	152 (48.6)	6 (35.3)	403 (41.2)	308 (37.4)	711 (39.5)
그저 그렇다	29 (9.5)	21 (10.9)	27 (9.4)	15 (12.4)	5 (6.7)	22 (11.6)	35 (11.6)	37 (11.8)	2 (11.8)	104 (10.6)	89 (10.8)	193 (10.7)
다소 관심이 적은 편	4 (1.3)	4 (2.1)	5 (1.7)	-	2 (2.7)	2 (1.1)	6 (2.0)	2 (0.6)	-	12 (1.2)	13 (1.6)	25 (1.4)
매우 관심이 적은 편	2 (0.7)	-	1 (0.3)	-	1 (1.3)	3 (1.6)	3 (1.0)	-	-	7 (0.7)	3 (0.4)	10 (0.6)
무 응 답	4 (1.3)	2 (1.0)	1 (0.3)	-	3 (4.0)	-	-	1 (0.3)	-	8 (0.8)	2 (0.2)	10 (0.6)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12) 월평균 용돈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월평균 용돈은 아래의 <표 1-12>과 같다. 아래의 <표 1-1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월평균 용돈은 10만원이하가 59.6%로 가장 높았고, 10~20만원이 27.2%, 20~30만원이 9.8%, 그리고 40만원이상이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인 경향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월평균 용돈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과대 70.6%, 공과대 69.0, 인문대 6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용돈이 10~20만원인 비율은 해양대가 3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법정대 30.2%, 사범대 2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용돈이 20~30만원인 경우는 자연대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양대 12.1%, 생명대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용돈이 40만원이상인 경우는 자연대가 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월평균 용돈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10만원이하	196 (64.3)	116 (60.4)	161 (55.9)	71 (58.7)	42 (56.0)	96 (50.5)	164 (54.5)	216 (69.0)	12 (70.6)	587 (60.0)	487 (59.2)	1,074 (59.6)
10~20만원	75 (24.6)	58 (30.2)	81 (28.1)	36 (29.8)	19 (25.3)	62 (32.6)	80 (26.6)	75 (24.0)	5 (29.4)	258 (26.4)	233 (28.3)	491 (27.2)
20~30만원	25 (8.2)	14 (7.3)	34 (11.8)	12 (9.9)	9 (12.0)	23 (12.1)	40 (13.3)	20 (6.4)	-	101 (10.3)	76 (9.2)	177 (9.8)
40만원이상	8 (2.6)	2 (1.0)	11 (3.8)	1 (0.8)	3 (4.0)	7 (3.7)	13 (4.3)	2 (0.6)	-	27 (2.8)	20 (2.4)	47 (2.6)
무 응 답	1 (0.3)	2 (1.0)	1 (0.3)	2 (2.6)	2 (2.7)	2 (1.1)	4 (1.3)	-	-	6 (0.6)	7 (0.9)	13 (0.7)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13) 용돈의 주사용처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용돈의 사용처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표 1-1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1-1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용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여가활동비로 4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식비 18.9%, 미용 및 의류구입비 11.4%, 기타 9.9%, 교통비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항목은 여가활동비였지만, 남학생들이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율은(47.9%) 여학생들과(37.3%)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8.6%)들은 여학생(0.2%)들과 비교해 볼 때 음주 및 흡연비 항목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들은

식비(24.4%) 및 미용 및 의류구입비(16.5%)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도 약간의 비율상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3> 용돈의 주사용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식 비	63 (20.7)	32 (16.7)	62 (21.5)	22 (18.2)	8 (10.7)	38 (20.0)	63 (20.9)	48 (15.3)	4 (23.5)	139 (14.2)	201 (24.4)	340 (18.9)
여 가 활 동 비	107 (35.1)	91 (47.4)	124 (43.1)	56 (46.3)	33 (44.0)	76 (40.0)	126 (41.9)	152 (48.6)	11 (64.7)	469 (47.9)	307 (37.3)	776 (43.1)
미용 및 의류 구 입 비	46 (15.1)	22 (11.5)	37 (12.8)	9 (7.4)	9 (12.0)	12 (6.3)	42 (14.0)	29 (9.3)	-	70 (7.2)	136 (16.5)	206 (11.4)
교 통 비	37 (12.1)	15 (7.8)	18 (6.3)	12 (9.9)	8 (10.7)	12 (6.3)	24 (8.0)	26 (8.3)	1 (5.9)	72 (7.4)	81 (9.8)	153 (8.5)
음주 및 흡연비	2 (0.7)	3 (1.6)	18 (6.3)	4 (3.3)	4 (5.3)	26 (13.7)	12 (4.0)	16 (5.1)	1 (5.9)	84 (8.6)	2 (0.2)	86 (4.8)
도 서 구 입 비	9 (3.0)	6 (3.1)	3 (1.0)	4 (3.3)	3 (4.0)	6 (3.2)	3 (1.0)	10 (3.2)	-	28 (2.9)	16 (1.9)	44 (2.4)
통 신 비	3 (1.0)	1 (0.5)	1 (0.3)	1 (0.8)	-	3 (1.6)	1 (0.3)	1 (0.3)	-	7 (0.7)	4 (0.5)	11 (0.6)
기 타	37 (12.1)	22 (11.5)	25 (8.7)	14 (10.7)	8 (10.7)	16 (8.4)	27 (9.0)	31 (9.9)	-	106 (10.8)	73 (8.9)	179 (9.9)
무 응 답	1 (0.3)	-	-	-	2 (2.7)	1 (0.5)	3 (1.0)	-	-	4 (0.4)	3 (0.4)	7 (0.4)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14)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에 대한 반응은 아래의 <표 1-14>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1-1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담할 사람이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8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이라고 나타났다. 나머지는 각각 1%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87.6%)이 남학생(86.1%)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 역시 본인이 부담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근소한 차이로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부모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공과대 93.3%, 사범대 88.4%의 순으로 나타났고, 해양대가 7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가 1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인문대 8.6%, 경상대 8.3%의 순이었으며, 공과대 경우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부 모	267 (87.5)	165 (85.9)	248 (86.1)	107 (88.4)	66 (88.0)	142 (74.7)	260 (86.4)	292 (93.3)	17 (100)	843 (86.1)	721 (87.6)	1,564 (86.8)
조부모	1 (0.3)	4 (2.1)	4 (1.4)	-	1 (1.3)	4 (2.1)	5 (1.7)	-	-	17 (1.7)	2 (0.2)	19 (1.1)
형 제	2 (0.7)	5 (2.6)	4 (1.4)	-	-	3 (1.6)	2 (0.7)	2 (0.6)	-	13 (1.3)	5 (0.6)	18 (1.0)
친 척	2 (0.7)	2 (1.0)	2 (0.7)	4 (3.3)	1 (1.3)	2 (1.1)	3 (1.0)	3 (1.0)	-	9 (0.9)	9 (1.1)	18 (1.0)
본 인	26 (8.5)	15 (7.8)	24 (8.3)	6 (5.0)	3 (4.0)	23 (12.1)	18 (6.0)	12 (3.8)	-	67 (6.8)	60 (7.3)	127 (7.0)
장학금	6 (2.0)	-	6 (2.1)	3 (2.5)	3 (4.0)	16 (8.4)	11 (3.7)	4 (1.3)	-	26 (2.7)	23 (2.8)	49 (2.7)
무응답	1 (0.3)	1 (0.5)	-	1 (0.8)	2 (2.7)	-	2 (0.7)	-	-	4 (0.4)	3 (0.4)	7 (0.4)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15) 심리·정서적 건강상태

자신의 심리 및 정서적 건강상태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1-15>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1-1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심리 및 정서적 상태가 매우 건전

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6.8%였고, 비교적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9%, 그리고 비교적 건강하지 못하거나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는 비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자신의 심리 및 정서적 상태가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심리 및 정서적 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48.4%)이 여학생(44.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건강하다는 비율은 여학생(36.5%)이 남학생(35.5%)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건강하다고 응답한 남학생(83.9%)의 비율이 여학생(81.3%)의 비율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심리 및 정서적 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15.6%)이 남학생(12.5%)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하지 못하다는 비율은 남학생은 3.3%, 여학생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심리 및 정서적 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가장 높았으며(88.3%), 공과대가 79.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심리 및 정서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가 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해양대 4.8%, 자연대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대인 경우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범대인 경우도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 심리·정서적 건강상태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 우 건 강	150 (49.2)	90 (46.9)	145 (50.3)	42 (34.7)	31 (41.3)	110 (57.9)	134 (44.5)	133 (42.5)	8 (47.1)	474 (48.4)	369 (44.8)	843 (46.8)
비교적 건 강	100 (32.8)	67 (34.9)	97 (33.7)	62 (51.2)	34 (45.3)	53 (27.9)	111 (36.9)	117 (37.4)	7 (41.2)	348 (35.5)	300 (36.5)	648 (36.0)
보 통 이 다	48 (15.7)	24 (12.5)	37 (12.8)	15 (12.4)	6 (8.0)	18 (9.5)	44 (14.6)	56 (17.9)	2 (11.8)	122 (12.5)	128 (15.6)	250 (13.9)
비교적 건 강 하 지 못 함	3 (1.0)	7 (3.6)	4 (1.4)	2 (1.7)	1 (1.3)	7 (3.7)	7 (2.3)	5 (1.6)	-	19 (1.9)	17 (2.1)	36 (2.0)
매 우 건 강 하 지 못 함	4 (1.3)	4 (2.1)	5 (1.7)	-	1 (1.3)	2 (1.1)	4 (1.3)	2 (0.6)	-	14 (1.4)	8 (1.0)	22 (1.2)
무 응 답	-	-	-	-	2 (2.7)	-	1 (0.3)	-	-	2 (0.2)	1 (0.1)	3 (0.2)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2. 대학생활 관련

1) 대학진학의 목적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대학진학 목적은 아래의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학에 진학하게 된 주된 목적은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32.4%,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10.3% 교양 습득을 위해서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녀 차이 없이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남학생(49.4%)들의 비율이 여학생(44.0%)의 비율 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34.9%)이 남학생(30.3%)들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를 제외한 다른 단과대학들의 신입생들은 대학진학의 목적을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의과대가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6.5%로 다른 단과대학들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해양대는 3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해양대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인문대의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 대학진학의 목적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120 (39.3)	98 (51.0)	151 (52.4)	64 (52.9)	35 (46.7)	72 (37.9)	151 (50.2)	142 (45.4)	13 (76.5)	484 (49.4)	362 (44.0)	846 (46.9)
교양 습득을 위해서	18 (5.9)	13 (6.8)	13 (4.5)	5 (4.1)	7 (9.3)	16 (8.4)	21 (7.0)	11 (3.5)	1 (5.9)	58 (5.9)	47 (5.7)	105 (5.8)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24 (7.9)	20 (10.4)	21 (7.3)	13 (10.7)	12 (16.0)	38 (20.0)	30 (10.0)	28 (8.9)	-	92 (9.4)	94 (11.4)	186 (10.3)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135 (44.3)	48 (25.0)	85 (29.5)	37 (20.6)	18 (24.0)	50 (26.3)	86 (28.6)	122 (39.0)	3 (17.6)	297 (30.3)	287 (34.9)	584 (32.4)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8 (2.6)	12 (6.3)	16 (5.6)	2 (1.7)	1 (1.3)	13 (6.8)	13 (4.3)	10 (3.2)	-	46 (4.7)	29 (3.5)	75 (4.2)
무 응답	-	1 (0.5)	2 (0.7)	-	2 (2.7)	1 (0.5)	-	-	-	2 (0.2)	4 (0.5)	6 (0.3)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2)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아래의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전공공부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26.0%, 다양한 사회경험 17.2%, 자격시험 준비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지한 이성교제 및 각종 동아리활동은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여 차이 없이 전공공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여학생(38.0%)들의 비율이 남학생(30.7%)의 비율 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 넓은 대인관계 형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8.1%)이 여학생(23.6%)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사회경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19.4%)이 남학생(15.3%)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진지한 이성교제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이 5.2%인 반면 여학생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 공 공 부	139 (45.6)	60 (31.3)	77 (26.7)	28 (23.1)	23 (30.7)	52 (27.4)	104 (34.6)	125 (39.9)	6 (35.3)	301 (30.7)	313 (38.0)	614 (34.1)
폭 넓은 대인 관 계 형 성	81 (26.6)	47 (24.5)	104 (36.1)	39 (32.2)	22 (29.3)	44 (23.2)	68 (22.6)	57 (18.2)	7 (41.2)	275 (28.1)	194 (23.6)	469 (26.0)
진 지 한 이 성 교 제	2 (0.7)	8 (4.2)	10 (3.5)	1 (0.8)	4 (5.3)	9 (4.7)	11 (3.7)	14 (4.2)	-	51 (5.2)	7 (0.9)	58 (3.2)
교양지식 습득	12 (3.9)	10 (5.2)	10 (3.5)	6 (5.0)	4 (5.3)	10 (5.3)	15 (5.0)	8 (2.6)	-	32 (3.3)	43 (5.2)	75 (4.2)
각종 동아리 활 동	6 (2.0)	8 (4.2)	5 (1.7)	1 (0.8)	4 (5.3)	8 (4.2)	10 (3.3)	16 (5.1)	-	39 (4.0)	19 (2.3)	58 (3.2)
다 양 한 사 회 경 험	39 (12.8)	33 (17.2)	57 (19.8)	33 (27.3)	11 (14.7)	27 (14.2)	57 (18.9)	50 (16.0)	3 (17.6)	150 (15.3)	160 (19.4)	310 (17.2)
자격시험 준비	12 (3.9)	21 (10.9)	16 (5.4)	11 (9.1)	4 (5.3)	21 (11.1)	21 (7.0)	28 (8.9)	1 (5.9)	83 (8.5)	52 (6.3)	135 (7.5)
기 타	13 (4.3)	5 (2.6)	9 (3.1)	2 (1.7)	1 (1.3)	19 (10.0)	15 (5.0)	16 (5.1)	-	47 (4.8)	33 (4.0)	80 (4.4)
무 응 답	1 (0.3)	-	-	-	2 (2.7)	-	-	-	-	1 (0.1)	2 (0.2)	3 (0.2)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전공공부, 폭넓은 인간관계 및 다양한 사회경험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경상대, 사범대와 의과대에는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의 경우에는 폭 넓은 대인관계 형성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다양한 사회경험 27.3%와 전공공부 2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문대와 사범대의 경우에는 진지한 이성교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0.7%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 '기회가 된다면 가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5.6%로 전체 응답자 중 80.2%가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학생의 비율은 89.2%로 남학생의 72.7%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9.5%)들에 비해 남학생(24.8%)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다.

<표 2-3>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적 극 적 으 로 기 회 를 찾 겠 다	155 (50.8)	83 (43.2)	146 (50.7)	60 (49.6)	30 (40.0)	88 (46.3)	132 (43.9)	103 (32.9)	7 (41.2)	381 (38.9)	423 (51.4)	804 (44.6)
기 회 가 된 다 면 가 보 겠 다	102 (33.4)	74 (38.5)	102 (35.4)	48 (39.7)	28 (37.3)	59 (31.1)	97 (32.2)	124 (39.6)	8 (47.1)	331 (33.8)	311 (37.8)	642 (35.6)
아 직 구 체 적 으 로 생 각 해 본 적 없 다	44 (14.4)	32 (16.7)	35 (12.2)	12 (9.9)	14 (18.7)	39 (20.5)	64 (21.3)	79 (25.2)	2 (11.8)	243 (24.8)	78 (9.5)	321 (17.8)
별 의 미 를 찾 지 못 하 겠 다	4 (1.3)	3 (1.6)	5 (1.7)	1 (0.8)	1 (1.3)	4 (2.1)	7 (2.3)	7 (2.2)	-	22 (2.2)	10 (1.2)	32 (1.8)
무 응 답	-	-	-	-	2 (2.7)	-	1 (0.3)	-	-	2 (0.2)	1 (0.1)	3 (0.2)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사범대가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의과대 88.3%, 경상대 86.1%, 인문대 8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과대는 7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과대가 가장 높았으며(25.2%), 이어서 자연대 21.3%, 해양대 20.5%의 순이었으며, 사범대는 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별 의미를 찾지 못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범대가 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문제점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응답한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문제점은 아래의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예상 문제점으로는 37.2%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방향 세우기'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학점 취득하기' 27.3%, '시간 및 생활관리하기'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문제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점 취득하기	94 (30.8)	34 (17.7)	59 (20.5)	25 (20.7)	25 (33.3)	59 (31.1)	80 (26.6)	112 (35.8)	4 (23.5)	266 (27.2)	226 (27.5)	492 (27.3)
진로에 대한 방향 세우기	127 (41.6)	57 (29.7)	129 (44.8)	37 (30.6)	22 (29.3)	67 (35.3)	111 (36.9)	115 (36.7)	5 (29.4)	340 (34.7)	330 (40.1)	670 (37.2)
대 인 관 계 유 지 하 기	22 (7.2)	19 (9.9)	19 (6.6)	7 (5.8)	7 (9.3)	10 (5.3)	15 (5.0)	13 (4.2)	2 (11.8)	60 (6.1)	54 (6.6)	114 (6.3)
시 간 및 생활 관 리 하 기	35 (11.5)	51 (26.6)	47 (16.3)	39 (32.2)	12 (16.0)	29 (15.3)	57 (18.9)	40 (12.8)	5 (29.4)	174 (17.8)	141 (17.1)	315 (17.5)
학비 및 생활 비 마 련 하 기	17 (5.6)	22 (11.5)	27 (9.4)	11 (9.1)	5 (6.7)	16 (8.4)	28 (9.3)	25 (8.0)	1 (5.9)	93 (9.5)	59 (7.2)	152 (8.4)
어려운 점 없다	9 (3.0)	9 (4.7)	6 (2.1)	2 (1.7)	2 (2.7)	9 (4.7)	10 (3.3)	7 (2.2)	-	43 (4.4)	11 (1.3)	54 (3.0)
무 응 답	1 (0.3)	-	1 (0.3)	-	2 (2.7)	-	-	1 (0.3)	-	3 (0.3)	2 (0.2)	5 (0.3)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차이 없이 '진로에 대한 방향 세우기'가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40.1%)이 남학생(34.7%)들 보다 더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4.4%)의 비율이 여학생(1.3%)들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학점 취득하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공과대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명대 33.3%, 해양대 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방향 세우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상대가 44.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문대 41.6%, 자연대 3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시간 및 생활관리하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범대가 32.2%로 가장 높았고, 의과대 29.4%, 법정대 2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진로에 대한 방향 세우기'가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사범대인 경우에는 '시간 및 생활관리하기'라는 반응이 가장 높았고, 생명대인 경우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학점 취득하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5) 기숙사 입사 희망여부

기숙사 입사 희망여부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 2-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절반 이상의(53.0%) 신입생들은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신입생은 17.5%였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였다.

<표 2-5> 기숙사 입사 희망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꼭 입사 하고 싶 다	43 (14.1)	33 (17.2)	64 (22.2)	31 (25.6)	17 (22.7)	34 (17.9)	59 (19.6)	31 (9.9)	1 (5.9)	186 (19.0)	127 (15.4)	313 (17.4)
입사하고 싶지 않 다	170 (55.7)	101 (52.6)	153 (53.1)	66 (54.5)	29 (38.7)	102 (53.7)	140 (46.5)	181 (57.8)	13 (76.5)	523 (53.4)	432 (52.5)	955 (53.0)
잘 모르 겠다	89 (29.2)	57 (29.7)	70 (24.3)	24 (18.8)	25 (33.3)	53 (27.9)	102 (33.9)	100 (31.9)	2 (11.8)	263 (26.9)	259 (31.5)	522 (29.0)
무 응 답	3 (1.0)	1 (0.5)	1 (0.3)	-	4 (5.3)	1 (0.5)	-	1 (0.3)	1 (5.9)	7 (0.7)	5 (0.6)	12 (0.7)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성별로 살펴보면, 기숙사에 입사를 희망하지 않은 비율은 남·여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입사를 원하는 비율은 남학생(19.0%)이 여학생(15.4%)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사범대로 25.6%의 학생들이 기숙사 입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생명대 22.7%, 경상대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대는 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은 비율은 의과대가 76.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생명대 3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아르바이트 희망여부는 아래의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82.6%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85.5%였고 남학생은 81.0%로,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3.7%, 여학생이 2.1%로 남학생들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6>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철실히 원한다	78 (25.6)	48 (25.0)	75 (26.0)	32 (26.4)	22 (29.3)	52 (27.4)	79 (26.2)	57 (18.2)	3 (17.6)	237 (24.2)	209 (25.4)	446 (24.8)
원 한 다	180 (59.0)	108 (56.3)	166 (57.6)	74 (61.2)	34 (45.3)	104 (54.7)	179 (59.5)	186 (59.4)	11 (64.7)	556 (56.8)	486 (59.1)	1,042 (57.8)
별로 관심 없다	36 (11.8)	30 (15.6)	36 (12.5)	13 (10.7)	12 (16.0)	28 (14.7)	35 (11.6)	57 (18.2)	3 (17.6)	145 (14.8)	105 (12.8)	250 (13.9)
하고 싶지 않다	8 (2.6)	5 (2.6)	10 (3.5)	2 (1.7)	3 (4.0)	5 (2.6)	7 (2.3)	13 (4.2)	-	36 (3.7)	17 (2.1)	53 (2.9)
무 응 답	3 (1.0)	1 (0.5)	1 (0.3)	-	4 (5.3)	1 (0.5)	1 (0.3)	-	-	5 (0.5)	6 (0.7)	11 (0.6)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사범대로 87.6%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자연대 85.7%, 인문대 84.6%, 경상대 8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단과대학은 공과대(77.6%)였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과대가 4.2%로 가장 높았고 사범대 1.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신입생들이 제시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는 아래의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 마련'(6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폭 넓은 사회경험 쌓기'(16.3%), '학비 마련'(11.8%), 그리고 '생활비 마련'(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남·여 큰 차이 없이 '용돈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폭 넓은 사회경험 쌓기' 및 '생활비 마련'에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은 '학비 마련'에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7>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폭 넓은 사회 경험 쌓기	36 (14.0)	24 (15.4)	39 (16.2)	24 (22.6)	14 (25.0)	23 (14.7)	32 (12.4)	47 (19.3)	4 (28.6)	133 (16.8)	110 (15.8)	243 (16.3)	
용 돈 마 련	174 (67.4)	111 (71.2)	156 (64.7)	65 (61.3)	30 (53.6)	97 (62.2)	170 (65.9)	148 (60.9)	10 (71.4)	510 (64.3)	451 (64.9)	961 (64.6)	
학 비 마 련	33 (12.8)	12 (7.7)	27 (11.2)	11 (10.4)	8 (14.3)	25 (16.0)	29 (11.2)	30 (12.3)	-	83 (10.5)	92 (13.2)	175 (11.8)	
생 활비 마 련	15 (5.8)	9 (5.8)	19 (7.9)	6 (5.7)	4 (7.1)	11 (7.1)	26 (10.1)	17 (7.0)	-	66 (8.3)	41 (5.9)	107 (7.2)	
무 응 답	-	-	-	-	-	-	1 (0.4)	1 (0.4)	-	1 (0.1)	1 (0.1)	2 (0.1)	
계	258 (100)	156 (100)	241 (100)	106 (100)	56 (100)	156 (100)	258 (100)	243 (100)	14 (100)	793 (100)	695 (100)	1,488 (100)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용돈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과대(71.4%)였으며, 이어서 법정대 71.2%, 인문대 67.4%, 자연대 6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대는 5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의 주된 이유가 '폭 넓은 사회경험 쌓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28.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생명대 25.0%, 사범대 22.6%, 공과대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가 16.0%로 가장 높았고, 법정대는 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가 10.1%로 가장 높았다. 의과대인 경우에는 '학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장학금의 필요성 및 이유

장학금의 필요성 및 그 이유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2-8>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장학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하며,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50.1%가 '등록금 충당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등록금과 생활비 총당 29.0%, 용돈 사용 12.0%, 생활비 총당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장학금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이 2.6% 및 여학생의 비율이 1.8%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등록금 충당을 위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53.5%)이 남학생(47.4%)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생활비 총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8.1%)이 여학생(3.8%)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범대 60.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문대 53.4%, 의과대 52.9%, 경상대와 공과대 51.4%의 순이었으며, 생명대가 4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과대가 31.0%로 가장 높았고, 자연대, 해양대, 경상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 29.4%로 타 대학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법정대, 사범대, 자연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총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생명대가 1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해양대 12.1%, 법정대 8.3%의 순이었으며, 사범대는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8> 장학금의 필요성 및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필요 없다	11 (3.6)	2 (1.0)	7 (2.4)	2 (1.7)	-	9 (4.7)	7 (2.3)	2 (0.6)	-	25 (2.6)	15 (1.8)	40 (2.2)
등록금 충당을 위해서	163 (53.4)	90 (46.9)	148 (51.4)	73 (60.3)	30 (40.0)	78 (41.1)	151 (50.2)	161 (51.4)	9 (52.9)	464 (47.4)	439 (53.5)	903 (50.1)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14 (4.6)	16 (8.3)	12 (4.2)	1 (0.8)	13 (17.3)	23 (12.1)	13 (4.3)	17 (5.4)	1 (5.9)	79 (8.1)	31 (3.8)	110 (6.1)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83 (27.2)	56 (29.2)	85 (29.5)	28 (23.1)	22 (29.3)	57 (30.0)	93 (30.9)	97 (31.0)	2 (11.8)	286 (29.2)	237 (28.8)	523 (29.0)
용돈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	32 (10.5)	28 (14.6)	35 (12.2)	16 (13.2)	6 (8.0)	23 (12.1)	7 (12.3)	35 (11.2)	5 (29.4)	122 (12.5)	95 (11.5)	217 (12.0)
무 응 답	2 (0.7)	-	1 (0.3)	1 (0.8)	4 (5.3)	-	-	1 (0.3)	-	3 (0.3)	6 (0.7)	9 (0.5)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9)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희망하는 장래의 직종에 대한 반응은 아래의 <표 2-9>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래 직종은 공무원(32.7%)이었으며, 이어서 교사 19.5%, 기술전문 분야 13.3%, 경영관리 8.7%, 일반기업체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 및 교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5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의 경제적 상황 및 구직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36.8%)들의 경우 공무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여학생(27.8%)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여학생(25.8%)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교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전문 분야와 예술직의 희망에서도 남·여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신입생들의 희망 직종은 비교적 자신이 속한 단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장래 희망 직종이 공무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법정대(75.5%)이었으며, 해양대 49.5%, 자연대 29.2%, 인문대

28.5%의 순이었고, 의과대(11.8%)와 사범대(14.0%)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래 희망직종이 교사라고 응답한 경우는 사범대가 78.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문대 34.1%, 의과대 29.4%의 순이었고, 공과대는 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전문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은 인문·사회계열 보다는 이공계열의 단과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영관리직의 경우에는 경상대가 타 단과대학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2-9>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공 무 원	87 (28.5)	145 (75.5)	79 (27.4)	17 (14.0)	16 (21.3)	94 (49.5)	88 (29.2)	61 (19.5)	2 (11.8)	360 (36.8)	229 (27.8)	589 (32.7)
일반기업체	20 (6.6)	6 (3.1)	32 (11.1)	1 (0.8)	10 (13.3)	18 (9.5)	22 (7.3)	40 (12.8)	-	83 (8.5)	66 (8.0)	149 (8.3)
금융기관	3 (1.0)	-	18 (6.3)	-	1 (1.3)	9 (4.7)	5 (1.7)	-	-	25 (2.6)	11 (1.3)	36 (2.0)
교 사	104 (34.1)	15 (7.8)	23 (8.0)	95 (78.5)	7 (9.3)	16 (8.4)	73 (24.3)	13 (4.2)	5 (29.4)	139 (14.2)	212 (25.8)	351 (19.5)
연구직	5 (1.6)	3 (1.6)	2 (0.7)	2 (1.7)	21 (28.0)	11 (5.8)	24 (8.0)	23 (7.3)	1 (5.9)	43 (4.4)	49 (6.0)	92 (5.1)
기술전문분야	9 (3.0)	6 (3.1)	15 (5.2)	1 (0.8)	6 (8.0)	21 (11.1)	40 (13.3)	136 (43.5)	5 (29.4)	173 (17.7)	66 (8.0)	239 (13.3)
사회봉사	24 (7.9)	4 (2.1)	3 (1.0)	-	2 (2.7)	3 (1.6)	14 (4.7)	3 (1.0)	4 (23.5)	22 (2.2)	35 (4.3)	57 (3.2)
경영관리	8 (2.6)	3 (1.6)	104 (36.1)	2 (1.7)	6 (8.0)	11 (5.8)	11 (3.7)	12 (3.8)	-	96 (9.8)	61 (7.4)	157 (8.7)
예술직	43 (14.1)	8 (4.2)	8 (2.8)	3 (2.5)	1 (1.3)	4 (2.1)	18 (6.0)	25 (8.0)	-	27 (2.8)	83 (10.1)	110 (6.1)
농축어업	-	-	-	-	1 (1.3)	1 (.5)	2 (0.7)	-	-	4 (0.4)	-	4 (0.2)
무 응답	2 (0.7)	2 (1.0)	4 (1.4)	-	4 (5.3)	2 (1.1)	4 (1.3)	-	-	7 (0.7)	11 (1.3)	18 (1.0)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10)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동아리 활동 여부 및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한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2-10>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1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9.3%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8/1%) 보다는 여학생(10.8%)들에게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 13.4%, 의과대 11.8%, 법정대 10.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명대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3%로 단과대학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취미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50.2%). 이어서 '스포츠 분야' 23.2%, '교양학술 분야'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봉사 분야' 및 '지역 및 사회문제 분야'는 각각 6.0%와 1.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0>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교양학술 분야	29 (9.5)	25 (13.0)	21 (7.3)	8 (6.6)	5 (6.7)	14 (7.4)	19 (6.3)	10 (3.2)	2 (11.8)	56 (5.7)	77 (9.4)	133 (7.4)
스포츠 분야	40 (13.1)	40 (20.8)	89 (30.9)	25 (20.7)	19 (25.3)	66 (34.7)	69 (22.9)	67 (21.4)	3 (17.6)	320 (32.7)	98 (11.9)	418 (23.2)
취미 분야	159 (52.1)	74 (38.5)	123 (42.7)	60 (49.6)	38 (50.7)	81 (42.6)	163 (54.2)	197 (62.9)	10 (58.8)	457 (46.7)	448 (54.4)	905 (50.2)
종교 분야	8 (2.6)	3 (1.6)	3 (1.0)	7 (5.8)	3 (4.0)	6 (3.2)	5 (1.7)	3 (1.0)	-	23 (2.3)	15 (1.8)	38 (2.1)
봉사 분야	22 (7.2)	24 (12.5)	16 (5.6)	11 (9.1)	1 (1.3)	4 (2.1)	18 (6.0)	12 (3.8)	-	26 (2.7)	82 (10.0)	108 (6.0)
지역 및 사회 문제 분야	4 (1.3)	4 (2.1)	8 (2.8)	1 (0.8)	1 (1.3)	2 (1.1)	1 (0.3)	1 (0.3)	-	14 (1.4)	8 (1.0)	22 (1.2)
하고 싶지 않다	41 (13.4)	21 (10.9)	27 (9.4)	9 (7.4)	4 (5.3)	17 (8.9)	24 (8.0)	23 (7.3)	2 (11.8)	79 (8.1)	89 (10.8)	168 (9.3)
무 응답	2 (0.7)	1 (0.5)	1 (0.3)	-	4 (5.3)	-	2 (0.7)	-	-	4 (0.4)	6 (0.7)	10 (0.6)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취미 분야'라고 응답한 여학생들의 비율은 54.5%로 남학생(46.7%)들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스포츠 분야'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32.7%)이 여학생(11.9%)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봉사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취미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은 공과대, 의과대, 인문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 의과대, 경상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양학술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가 13.0%로 가장 높았고, 공과대는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1)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신입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아래의 <표 2-1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1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주된 이유는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신입생의 64.1%가 그렇게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적성개발과 취미생활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2.5%,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5.3%, '자아발견과 인격성숙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5.4%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모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주된 이유로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응답 비율상에도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외 이유들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적성개발과 취미생활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39.1%)에 비해 남학생(45.3%)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발견과 인격성숙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30.4%)에 비해 여학생(41.1%)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상대 75.5%, 인문대 73.9%, 법정대 7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대는 4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적성개발과 취미생활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생명대가 46.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공과대 43.4%, 인문대 41.3%, 경상대 41.0%의 순이었고, 해양대는 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적성개발과 취미생활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

답한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법정대, 사범대, 해양대 및 의과대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해양대인 경우에는 '자아발견과 인격성숙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1>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자아발견과 인격성숙을 위해서	34 (12.9)	26 (15.2)	44 (16.9)	19 (17.0)	7 (9.9)	34 (19.7)	40 (14.4)	44 (15.2)	3 20.0	156 (17.3)	96 (13.1)	252 (15.4)
교육지식을 얻기 위해서	17 (6.4)	13 (7.6)	11 (4.2)	9 (8.0)	5 (7.0)	17 (9.8)	15 (5.4)	13 (4.5)	-	56 (6.2)	49 (6.7)	105 (6.4)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17 (6.4)	12 (7.0)	9 (3.4)	11 (9.8)	2 (2.8)	11 (6.4)	17 (6.1)	10 (3.4)	-	32 (3.6)	59 (8.0)	91 (5.6)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195 (73.9)	122 (71.3)	197 (75.5)	72 (64.3)	41 (57.7)	87 (46.8)	193 (69.7)	201 (69.3)	13 (86.7)	630 (70.0)	507 (69.1)	1047 (64.1)
다양한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	90 (30.1)	68 (40.0)	99 (37.9)	55 (49.1)	19 (26.8)	15 (8.7)	59 (21.3)	96 (33.1)	7 (46.7)	274 (30.4)	302 (41.1)	576 (35.3)
적성개발과 취미생활을 위해서	109 (41.3)	64 (37.4)	107 (41.0)	42 (37.5)	33 (46.5)	9 (5.2)	75 (27.1)	126 (43.4)	5 (33.3)	408 (45.3)	287 (39.1)	695 (42.5)
계	264	171	261	112	71	173	277	290	15	900	734	1,634

주:복수 응답

12)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내용은 아래의 <표 2-1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1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와 '학업에 방해가 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내활동을 하고 싶어서'와 '주위의 반대로'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9.5%와 7.1%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차이 없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3.3%와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에 방해가 되어서',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즉, 학업에 대한 영향보다는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법정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들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정대인 경우에는 '학업에 방해가 되어서'와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과대 경우에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학업에 방해가 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2-12>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가입시기를 놓쳐서	-	-	3 (11.1)	-	-	-	-	-	-	2 (2.5)	1 (1.1)	3 (1.8)
다른 학내활동을 하고 싶어서	4 (9.8)	1 (4.8)	2 (7.4)	4 (44.4)	1 (25.0)	1 (5.9)	-	3 (13.0)	-	7 (8.9)	9 (10.1)	16 (9.5)
학업에 방해가 되어서	19 (46.3)	11 (52.4)	6 (22.2)	3 (33.3)	1 (25.0)	7 (41.2)	7 (29.2)	13 (56.5)	-	33 (41.8)	34 (38.2)	67 (40.0)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어서	10 (24.4)	11 (52.4)	16 (59.3)	3 (33.3)	-	6 (35.3)	14 (58.3)	8 (34.8)	1 (50.0)	30 (38.0)	39 (43.8)	69 (41.1)
필요성을 못느껴서	27 (65.9)	4 (19.0)	15 (55.6)	6 (66.7)	3 (75.0)	9 (52.9)	15 (62.5)	17 (73.9)	2 (100)	50 (63.3)	56 (62.9)	106 (63.1)
주위의 반대로	3 (7.3)	3 (14.3)	1 (3.7)	-	1 (25.0)	2 (11.8)	1 (4.2)	1 (4.3)	-	5 (6.3)	7 (7.9)	12 (7.1)
계	41	21	27	9	4	17	24	23	2	79	89	168

주:복수 응답

3. 대학 및 학부(과) 선택 관련

1)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입학하기 전 본교에 대한 신입생들의 인식은 아래의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4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좋은 편'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이고,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입생들은 입학 전 본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8%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49.3%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42.9%)이 남학생(37.7%)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남학생(6.4%) 보다 여학생(7.8%)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본교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생명대(65.4%)로 나타났고, 이어서 인문대 60.3%, 의과대 52.9%, 자연대 52.5%의 순이었으며, 해양대는 4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 경상대, 자연대, 해양대의 순이었으며, 생명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해양대로, 11.6%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법정대 10.9%, 사범대 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주 좋았다	59 (19.3)	18 (9.4)	41 (14.2)	13 (10.7)	20 (26.7)	35 (18.4)	47 (15.6)	46 (14.7)	4 (23.5)	164 (16.8)	119 (14.5)	283 (15.7)
다소 좋았다	125 (41.0)	74 (38.5)	96 (33.3)	47 (38.8)	29 (38.7)	55 (28.9)	111 (36.9)	126 (40.3)	5 (29.4)	382 (39.0)	286 (34.8)	668 (37.1)
보통이다	102 (33.4)	79 (41.1)	131 (45.5)	51 (42.1)	19 (25.3)	78 (41.1)	129 (42.9)	125 (39.9)	8 (47.1)	369 (37.7)	353 (42.9)	722 (40.1)
별로 좋지 않았다	14 (4.6)	16 (8.3)	13 (4.5)	9 (7.4)	4 (5.3)	14 (7.4)	12 (4.0)	14 (4.5)	-	45 (4.6)	51 (6.2)	96 (5.3)
아주 좋지 않았다	5 (1.6)	5 (2.6)	7 (2.4)	1 (0.8)	1 (1.3)	8 (4.2)	2 (0.7)	2 (0.6)	-	18 (1.8)	13 (1.6)	31 (1.7)
무응답	-	-	-	-	2 (2.7)	-	-	-	-	1 (0.1)	1 (0.1)	2 (0.1)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2) 본교 선택시 우선 고려 사항

신입생들이 본교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사항들은 아래의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31.8%의 학생들이 본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취향'을 우선 고려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적(합격가능성)' 및 '취업전망'

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모두 '자신의 적성과 취향'을 우선 고려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취업전망', '성적(합격가능성)', 지역적 인접성의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적(합격 가능성)', '취업전망', 지역적 인접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 비율은 남·여에 따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취업전망'(남학생, 22.8%, 여학생, 17.9%)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지역적 인접성'(남학생, 11.8%; 여학생, 16.4%)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여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본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취향'을 우선 고려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문대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자연대 39.2%, 공과대 33.9%, 사범대 3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대인 경우에는 '취업전망'을 우선 고려했다는 응답한 비율이 70.6%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범대(32.2%)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법정대는 '지역적 인접성'과 '성적(합격 가능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생명대는 본교 선택시 '성적(합격 가능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 본교 선택시 우선 고려 사항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자신의 적성과 취향	138 (45.2)	34 (17.7)	88 (30.6)	38 (31.4)	14 (18.7)	34 (17.9)	118 (39.2)	106 (33.9)	3 (17.6)	296 (30.2)	277 (33.7)	573 (31.8)
취업전망	27 (8.9)	32 (16.7)	61 (21.2)	39 (32.2)	20 (26.7)	51 (26.8)	62 (20.6)	66 (21.1)	12 (70.6)	223 (22.8)	147 (17.9)	370 (20.5)
우수한 교수진 및 연구활동	1 (0.3)	2 (1.0)	-	-	4 (5.3)	5 (2.6)	6 (2.0)	1 (0.3)	-	11 (1.1)	8 (1.0)	19 (1.1)
장학제도 및 기숙사	5 (1.6)	6 (3.1)	2 (0.7)	-	2 (2.7)	20 (10.5)	5 (1.7)	8 (2.6)	-	26 (2.7)	22 (2.7)	48 (2.7)
지역적 인접성	45 (14.8)	41 (21.4)	44 (15.3)	23 (19.0)	10 (13.3)	11 (5.8)	39 (13.0)	38 (12.1)	-	116 (11.8)	135 (16.4)	251 (13.9)
성적(합격 가능성)	66 (21.6)	54 (28.1)	69 (24.0)	18 (14.9)	20 (26.7)	40 (21.1)	48 (15.9)	55 (17.6)	2 (11.8)	207 (21.1)	165 (20.0)	372 (20.6)
기 타	23 (7.5)	23 (12.0)	24 (8.3)	3 (2.5)	3 (4.0)	29 (15.3)	23 (7.6)	38 (12.1)	-	98 (10.0)	68 (8.3)	166 (9.2)
무 응답	-	-	-	-	2 (2.7)	-	-	1 (0.3)	-	2 (0.2)	1 (0.1)	3 (0.2)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3) 본교 지원시 입시정보의 수집경로

본교 지원시 입시정보의 수집경로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본교를 지원할 때 입시정보를 수집한 주된 경로는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2.5%). 이어서 '신입생 모집요강 및 홍보물'(23.0%), '진학지도 담당교사'(20.2%), '선배, 가족 및 친척'(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시정보를 '제주대학교 입시설명회'를 통해 수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간의 큰 차이 없이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19.3%)들에 비해 여학생(27.5%)들은 '신입생 모집요강 및 홍보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학지도 담당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3.8%)이 여학생(1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본교 지원시 입시정보의 수집경로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96 (31.5)	64 (33.3)	118 (41.0)	48 (39.7)	23 (30.7)	50 (26.3)	96 (31.9)	83 (26.5)	7 (41.2)	309 (31.6)	276 (33.5)	585 (32.5)
신입생 모집 요강 및 홍보물	82 (26.9)	48 (25.0)	59 (20.5)	31 (25.6)	13 (17.3)	30 (15.8)	74 (24.6)	75 (24.0)	3 (17.6)	189 (19.3)	226 (27.5)	415 (23.0)
진학지도 담당교사	56 (18.4)	30 (15.6)	39 (13.5)	20 (16.5)	20 (26.7)	60 (31.6)	48 (15.9)	90 (28.8)	1 (5.9)	233 (23.8)	131 (15.9)	364 (20.2)
제주대학교 입시설명회	11 (3.6)	8 (4.2)	5 (1.7)	1 (0.8)	2 (2.7)	3 (1.6)	8 (2.7)	8 (2.6)	1 (5.9)	20 (2.0)	27 (3.3)	47 (2.6)
선배, 가족 및 친척	33 (10.8)	22 (11.5)	42 (14.6)	13 (10.7)	11 (14.7)	27 (14.2)	42 (14.0)	35 (11.2)	4 (23.5)	129 (13.2)	100 (12.2)	229 (12.7)
입시학원	7 (2.3)	-	1 (0.3)	2 (1.7)	-	1 (0.5)	2 (0.7)	2 (0.6)	1 (5.9)	8 (0.8)	8 (1.0)	16 (0.9)
기 타	20 (6.6)	20 (10.4)	24 (8.3)	6 (5.0)	4 (5.3)	19 (10.0)	31 (10.3)	20 (6.4)	-	90 (9.2)	54 (6.6)	144 (8.0)
무 응답	-	-	-	-	2 (2.7)	-	-	-	-	1 (0.1)	1 (0.1)	2 (0.1)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본교 지원시 입시정보의 수집경로를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41.2%), 경상대(41.0%), 사범대(39.7%), 법정대(3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신입생 모집요강 및 홍보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인문대(26.9%), 사범대(25.6%), 법정대(25.0%), 자연대(24.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범대인 경우 '제주대학교 입시설명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타 시·도 학생들에 대한 홍보방법

타 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교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에게 본교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홍보 방법은 '전국 및 지역단위 매스컴을 통한 홍보'인 것으로 나타났고(31.4%), 이어서 '타 지역 출신 교수 및 재학생의 모교방문 홍보'(25.5%), '입학안내 홍보물의 배부처 및 배부수량 확대'(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 타 시·도 학생들에 대한 홍보방법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타 지역출신 교수 및 재학생의 모교방문 홍보	85 (27.9)	38 (19.8)	62 (21.5)	32 (26.4)	20 (26.7)	63 (33.2)	70 (23.3)	89 (28.4)	1 (5.9)	240 (24.5)	220 (26.7)	460 (25.5)
전국 및 지역단위 매스컴을 통한 홍보	97 (31.8)	78 (40.6)	100 (34.7)	38 (31.4)	25 (33.8)	36 (18.9)	89 (29.6)	94 (30.0)	8 (47.1)	289 (29.5)	276 (33.5)	565 (31.4)
입학안내 홍보물의 배부처 및 배부수량 확대	42 (13.8)	21 (10.9)	55 (19.1)	22 (18.2)	13 (17.3)	27 (14.2)	52 (17.3)	37 (11.8)	4 (23.5)	149 (15.2)	124 (15.1)	273 (15.1)
기숙사 입사 우선권 부여 및 숙소 정보제공	22 (7.2)	24 (12.5)	21 (7.3)	16 (13.2)	4 (5.3)	18 (9.5)	33 (11.0)	18 (5.8)	2 (11.8)	92 (9.4)	66 (8.0)	158 (8.8)
모 르 겠 다	56 (18.4)	29 (15.1)	49 (17.0)	13 (10.7)	11 (14.7)	46 (24.2)	57 (18.9)	75 (24.0)	1 (5.9)	205 (20.9)	132 (16.0)	337 (18.7)
무 응 답	3 (1.0)	2 (1.0)	1 (0.3)	-	2 (2.7)	-	-	-	1 (5.9)	4 (0.4)	5 (0.6)	9 (0.5)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29.5%) 보다는 여학생(33.5%)들이 '전국 및 지역단위 마스크를 통한 홍보'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출신 교수 및 재학생의 모교방문 홍보'라고 응답한 비율도 여학생(26.7%)이 남학생(24.5%)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20.9%)들의 경우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16.0%)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국 및 지역단위 마스크를 통한 홍보'방법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대학은 의과대(47.1%), 법정대(40.6%), 경상대(34.7%), 생명대(33.8%)의 순이었고, '타 지역출신 교수 및 재학생의 모교방문 홍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33.2%), 공과대(28.4%), 인문대(27.9%), 생명대(2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과대인 경우, 타 단과대학에 비해 '타지역 출신 교수 및 재학생의 모교방문 홍보'(5.9%) 보다는 '입학안내 홍보물의 배부처 및 배부수량 확대'(23.5%)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지망학부(과) 선택시기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지망학부(과)를 선택한 시기는 아래의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상당수의 학생들은 사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망학부(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전형 마감에 임박해서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8%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말 이전에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3.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지망학부(과)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46.3%)이 남학생(41.6%)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44.3%)이 여학생(40.9%)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지망학부(과)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사범대(53.7%)로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해당 기간에 지망학과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경상대 49.7%, 법정대 45.3%, 해양대 44.7%, 생명대 4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에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52.9%), 해양대(48.4%), 공과대(47.6%), 생명대(45.3%)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말 이전에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문대(22.6%)가 장 높게 나타났다.

<표 3-5> 지망학부(과) 선택시기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입학원서 접수 기 간 중	125 (41.0)	87 (45.3)	143 (49.7)	65 (53.7)	32 (42.7)	85 (44.7)	121 (40.2)	124 (39.6)	6 (35.3)	407 (41.6)	381 (46.3)	788 (43.7)
고교3~입학원 서 접수 전	110 (36.1)	86 (44.8)	119 (41.3)	44 (36.4)	34 (45.3)	92 (48.4)	128 (42.5)	149 (47.6)	9 (52.9)	434 (44.3)	337 (40.9)	771 (42.8)
고 교 1~2 학 년 말	59 (19.3)	15 (7.8)	20 (6.9)	8 (6.6)	4 (5.3)	10 (5.3)	36 (12.0)	32 (10.2)	2 (11.8)	104 (10.6)	82 (10.0)	186 (10.3)
중 학 교 또 는 그 이 전	10 (3.3)	3 (1.6)	5 (1.7)	4 (3.3)	3 (4.0)	3 (1.6)	16 (5.3)	8 (2.6)	-	32 (3.3)	20 (2.4)	52 (2.9)
무 응 답	1 (0.3)	1 (0.5)	1 (0.3)	-	2 (2.7)	-	-	-	-	2 (0.2)	3 (0.4)	5 (0.3)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6) 본교에 대한 자긍심 정도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갖고 있는 본교에 대한 자긍심 정도는 아래의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본교가 '매우 자랑스럽거나 자랑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신입생은 전체의 52.8%로, 다수의 학생들은 본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3.4%였으며, 본교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본교에 대한 자부심의 정도는 여학생들 보다는 남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끄럽다고 응답한 비율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본교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큰 대학은 의과대로, 76.4%의 학생들이 본교가 '매우 자랑스럽거나 자랑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인문대 61.3%, 생명대 60.0%, 사범대 55.4%, 자연대 54.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본교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8.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양대 7.9%로 그 뒤를 이었으나, 의과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본교에 대한 자긍심 정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자랑스럽다	37 (12.1)	14 (7.3)	24 (8.3)	10 (8.3)	10 (13.3)	25 (13.2)	28 (9.3)	35 (11.2)	3 (17.6)	123 (12.6)	63 (7.7)	186 (10.3)
자랑스러운 편이다	150 (49.2)	69 (35.9)	130 (45.1)	57 (47.1)	35 (46.7)	59 (31.1)	135 (44.9)	121 (38.7)	10 (58.8)	401 (41.0)	365 (44.3)	766 (42.5)
그저 그렇다	112 (36.7)	92 (47.9)	126 (43.8)	52 (43.0)	27 (36.0)	91 (47.9)	126 (41.9)	152 (48.6)	4 (23.5)	411 (42.0)	371 (45.1)	782 (43.4)
부끄러운 편이다	5 (1.6)	13 (6.8)	5 (1.7)	2 (1.7)	1 (1.3)	5 (2.6)	9 (3.0)	3 (1.0)	-	25 (2.6)	18 (2.2)	43 (2.4)
매우 부끄럽다	1 (0.3)	3 (1.6)	2 (0.7)	-	-	10 (5.3)	2 (0.7)	2 (0.7)	-	16 (1.6)	4 (0.5)	20 (1.1)
무 응 답	-	1 (0.5)	1 (0.3)	-	2 (2.7)	-	1 (0.3)	-	-	3 (0.3)	2 (0.2)	5 (0.3)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7)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적합도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적합도는 아래의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다수의 신입생(64.8%)들은 자신이 입학한 모집단위가 자신의 적성 및 취향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였으며, 자신이 입학한 모집단위와 '자신의 적성 및 취향이 맞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큰 차이 없이 서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잘 맞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66.1%)이 남학생(63.8%)들 보다 높지만,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32.1%)이 여학생(28.9%)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4.7%)이 남학생(3.6%)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잘 맞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범대 78.5%, 인문대 74.7%, 자연대 69.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45.3%), 생명대(36.0%), 법정대

(35.9%), 경상대(3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한 모집단위가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가 1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명대는 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적합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적성과 취향에 잘 맞는다	83 (27.2)	25 (13.0)	40 (13.9)	16 (13.2)	13 (17.3)	25 (13.2)	62 (20.6)	60 (19.2)	4 (23.5)	181 (18.5)	147 (17.9)	328 (18.2)
적성과 취향에 맞는 편이다	145 (47.5)	93 (48.4)	134 (46.5)	79 (65.3)	32 (42.7)	56 (29.5)	144 (47.8)	146 (46.6)	11 (64.7)	443 (45.3)	397 (48.2)	840 (46.6)
그저 그렇다	69 (22.6)	69 (35.9)	97 (33.7)	23 (19.0)	27 (36.0)	86 (45.3)	80 (26.6)	100 (31.9)	1 (5.9)	314 (32.1)	238 (28.9)	552 (30.6)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	6 (2.0)	5 (2.6)	10 (3.5)	1 (0.8)	-	10 (5.3)	7 (2.3)	5 (1.6)	1 (5.9)	21 (2.1)	24 (2.9)	45 (2.5)
적성과 취향에 전혀 맞지 않는다	2 (0.7)	-	5 (1.7)	2 (1.7)	1 (1.3)	10 (5.3)	8 (2.7)	2 (0.6)	-	15 (1.5)	15 (1.8)	30 (1.7)
무 응 답	-	-	2 (0.7)	-	2 (2.7)	3 (1.6)	-	-	-	5 (0.5)	2 (0.2)	7 (0.4)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8) 전과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전과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는 아래의 <표 3-8>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과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78.5%로,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전과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과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82.5%, 남학생이 75.1%로 여학생이 남학생들 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잘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과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

문대가 8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법정대 82.3%, 생명대 81.3%, 경상대 8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해양대 30.0%, 공과대 22.4%, 사범대 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전과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잘 알고 있다	70 (23.0)	47 (24.5)	68 (23.6)	28 (23.1)	22 (29.3)	47 (24.7)	67 (22.3)	61 (19.5)	2 (11.8)	210 (21.5)	202 (24.5)	412 (22.9)
대충 알고 있다	187 (61.3)	111 (57.8)	163 (56.6)	66 (54.5)	39 (52.0)	86 (45.3)	159 (52.8)	182 (58.1)	9 (52.9)	525 (53.6)	477 (58.0)	1,002 (55.6)
잘 모른다	39 (12.8)	28 (14.6)	51 (17.7)	26 (21.5)	11 (14.7)	44 (23.2)	54 (17.9)	57 (18.2)	5 (29.4)	191 (19.5)	124 (15.1)	315 (17.5)
전혀 모른다	8 (2.6)	6 (3.1)	6 (2.1)	1 (0.8)	1 (1.3)	13 (6.8)	21 (7.0)	13 (4.2)	1 (5.9)	51 (5.2)	19 (2.3)	70 (3.9)
무 응답	1 (0.3)	-	-	-	2 (2.7)	-	-	-	-	2 (0.2)	1 (0.1)	3 (0.2)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9) 복수전공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복수전공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는 아래의 <표 3-9>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9>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복수전공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7.7%로, 상당수의 신입생들은 복수전공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1.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복수전공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75.4%, 남학생이 61.4%로 여학생이 남학생들 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잘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38.0%로 여학생(24.4%)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복수전공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범대가 89.4%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인문대 77.3%,

법정대 70.8%, 의과대 70.6%, 생명대 6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공과대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해양대 36.8%, 자연대 36.5%, 경상대 3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복수전공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잘 알고 있다	55 (18.0)	34 (17.7)	47 (16.3)	24 (19.8)	15 (20.0)	37 (19.5)	43 (14.3)	30 (9.6)	-	137 (14.0)	148 (18.0)	285 (15.8)
대충 알고 있다	181 (59.3)	102 (53.1)	145 (50.3)	83 (68.6)	36 (48.0)	80 (42.1)	147 (48.8)	150 (47.9)	12 (70.6)	464 (47.4)	472 (57.4)	936 (51.9)
잘 모른다	61 (20.0)	48 (25.0)	82 (28.5)	13 (10.7)	19 (25.3)	57 (30.0)	91 (30.2)	115 (36.7)	4 (23.5)	308 (31.5)	182 (22.1)	490 (27.2)
전혀 모른다	6 (2.0)	8 (4.2)	14 (4.9)	1 (0.8)	3 (4.0)	13 (6.8)	19 (6.3)	18 (5.8)	1 (5.9)	64 (6.5)	19 (2.3)	83 (4.6)
무 응 답	2 (0.7)	-	-	-	2 (2.7)	3 (1.6)	1 (0.3)	-	-	6 (0.6)	2 (0.2)	8 (0.4)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10) 복수전공을 원하는 단과대학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단과대학은 아래의 <표 3-10>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1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복수전공을 가장 희망하는 단과대학은 사범대로 나타났다. 31.9%의 학생들이 사범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인문대 18.6%, 경상대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사범대(35.7%)와 인문대(24.2%)에서의 복수전공을 남학생들에 비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과대를 선호하는 경우는 남학생(12.1%)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범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문과계열의 단과대학 신입생들은 문과계열을, 이공계통의 단과대학 신입생들은 이공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해양대인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공과대(19.5%)로 사범대(17.9%)를 원하는 학생들의 비율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0> 복수전공을 원하는 단과대학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인문대	86 (28.2)	43 (22.4)	68 (23.6)	12 (9.9)	12 (16.0)	26 (13.7)	40 (13.3)	45 (14.4)	3 (17.6)	136 (13.9)	199 (24.2)	335 (18.6)
법정대	25 (8.2)	12 (6.3)	56 (19.4)	10 (8.3)	5 (6.7)	22 (11.6)	20 (6.6)	17 (5.4)	-	99 (10.1)	68 (8.3)	167 (9.3)
경상대	44 (14.4)	26 (13.5)	36 (12.5)	6 (5.0)	15 (20.0)	25 (13.2)	46 (15.3)	46 (14.7)	-	143 (14.6)	101 (12.3)	244 (13.5)
사범대	104 (34.1)	84 (43.8)	100 (34.7)	75 (62.0)	11 (14.7)	34 (17.9)	83 (27.6)	75 (24.0)	9 (52.9)	281 (28.7)	294 (35.7)	575 (31.9)
생명대	1 (0.3)	2 (1.0)	1 (0.3)	3 (2.5)	4 (5.3)	3 (1.6)	11 (3.7)	6 (1.9)	1 (5.9)	18 (1.8)	14 (1.7)	32 (1.8)
해양대	-	4 (2.1)	2 (0.7)	1 (0.8)	1 (1.3)	12 (6.3)	5 (1.7)	12 (3.8)	-	34 (3.5)	3 (0.4)	37 (2.1)
자연대	2 (0.7)	2 (1.0)	3 (1.0)	4 (3.3)	8 (10.7)	11 (5.8)	37 (12.3)	31 (9.9)	1 (5.9)	56 (5.7)	43 (5.2)	99 (5.5)
공과대	12 (3.9)	5 (2.6)	7 (2.4)	4 (3.3)	4 (5.3)	37 (19.5)	29 (9.6)	56 (17.9)	1 (5.9)	118 (12.1)	37 (4.5)	155 (8.6)
의과대	10 (3.3)	6 (3.1)	8 (2.8)	3 (2.5)	11 (14.7)	11 (5.8)	17 (5.6)	16 (5.1)	1 (5.9)	53 (5.4)	30 (3.6)	83 (4.6)
무응답	21 (6.9)	8 (4.2)	7 (2.4)	3 (2.5)	4 (5.3)	9 (4.7)	13 (4.3)	9 (2.9)	1 (5.9)	41 (4.2)	34 (4.1)	75 (4.2)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11) 복수전공을 원하는 이유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복수전공을 원하는 이유는 아래의 <표 3-1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1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이 복수전공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기회의 확대' 때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1.1%가 '취업 기회의 확대 때문에' 복수전공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공의 학문적 보완' 및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더 많아서'가 그 뒤를 이었다.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으므로'라고 응답한 비율도 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여 간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여 모두 큰 차이 없이 복수전공을 원하는 이유를 ‘취업 기회의 확대’, ‘전공의 학문적 보완’ 및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더 많아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더 많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서 ‘취업 기회의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과대의 경우에는 ‘전공의 학문적 보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 기회의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법정대였으며, 이어서 인문대, 공과대, 경상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학문적 보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 경상대, 인문대, 자연대의 순이었으며,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더 많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범대, 생명대, 법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복수전공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가 12.6%로 가장 높았고, 경상대 12.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사범대의 경우에는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1> 복수전공을 원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으므로	15 (4.9)	10 (5.2)	35 (12.2)	3 (2.5)	7 (9.3)	24 (12.6)	23 (7.6)	31 (9.9)	1 (5.9)	84 (8.6)	65 (7.9)	149 (8.3)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23 (7.5)	6 (3.1)	11 (3.8)	7 (5.8)	3 (4.0)	26 (13.7)	18 (6.0)	17 (5.4)	-	64 (6.5)	47 (5.7)	111 (6.2)
전공의 학문적 보완 때문에	75 (24.6)	42 (21.9)	76 (26.4)	25 (20.7)	17 (22.7)	23 (12.1)	69 (22.9)	65 (20.8)	8 (47.1)	223 (22.8)	177 (21.5)	400 (22.2)
취업 기회의 확대 때문에	131 (43.0)	90 (46.9)	123 (42.7)	43 (35.5)	20 (26.7)	75 (39.5)	123 (40.9)	133 (42.5)	3 (17.6)	401 (41.0)	340 (41.3)	741 (41.1)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더 많아서	39 (12.8)	35 (18.2)	34 (11.8)	35 (28.9)	19 (25.3)	33 (17.4)	52 (17.3)	56 (17.9)	3 (17.6)	154 (15.7)	152 (18.5)	306 (17.0)
무 응답	22 (7.2)	9 (4.7)	9 (3.1)	8 (6.6)	9 (12.0)	9 (4.7)	16 (5.3)	11 (3.5)	2 (11.8)	53 (5.4)	42 (5.1)	95 (5.3)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4. 기대하는 교수상 및 대인관계

1)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는 사항은 아래의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4-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에 대해 '해박한 지식 전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진로(취업)지도' 19.3%, '높은 학점' 18.9%, '인생에 대한 조언' 11.2%, '학생에 대한 이해' 1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해박한 지식 전달', '높은 학점', '진로(취업)지도'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높은 학점'보다는 '진로(취업)지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해박한 지식 전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27.5%)이 남학생(21.6%)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학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0.3%)이 여학생(17.3%)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인생관에 대한 조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해 박 한 지 식 전 달	93 (30.5)	54 (28.1)	67 (23.3)	28 (23.1)	15 (20.0)	38 (20.0)	72 (23.9)	65 (20.8)	5 (29.4)	211 (21.6)	226 (27.5)	437 (24.3)
인생관에 대한 조언	24 (7.9)	18 (9.4)	34 (11.8)	26 (21.5)	11 (14.7)	28 (14.7)	32 (10.6)	26 (8.3)	3 (17.6)	134 (13.7)	68 (8.3)	202 (11.2)
인간적 인 유 대 관 계	35 (11.5)	14 (7.3)	30 (10.4)	14 (11.6)	6 (8.0)	16 (8.4)	34 (11.3)	30 (9.6)	-	105 (10.7)	74 (9.0)	179 (9.9)
연구하는 교수	12 (3.9)	3 (1.6)	6 (2.1)	10 (8.3)	2 (2.7)	6 (3.2)	10 (3.3)	10 (3.2)	1 (5.9)	29 (3.0)	31 (3.8)	60 (3.3)
높은 학 점	51 (16.7)	33 (17.2)	51 (17.7)	13 (10.7)	18 (24.0)	46 (24.2)	56 (18.6)	70 (22.4)	2 (11.8)	198 (20.3)	142 (17.3)	340 (18.9)
진 로(취업) 지 도	55 (18.0)	44 (22.9)	58 (20.1)	13 (10.7)	11 (14.7)	31 (16.3)	63 (20.9)	69 (22.0)	3 (17.6)	176 (18.0)	171 (20.8)	347 (19.3)
활 발 한 대 외 사 회 활 동	4 (1.3)	4 (2.1)	13 (4.3)	1 (0.8)	1 (1.3)	6 (3.2)	4 (1.3)	4 (1.3)	-	21 (2.1)	16 (1.9)	37 (2.1)
학 생 에 대 한 이 해	29 (9.5)	22 (11.5)	29 (10.1)	16 (13.2)	8 (10.7)	19 (10.0)	29 (9.6)	39 (12.5)	3 (17.6)	104 (10.6)	90 (10.9)	194 (10.8)
무 응 답	2 (0.7)	-	-	-	3 (4.0)	-	1 (0.3)	-	-	1 (0.1)	5 (0.6)	6 (0.3)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해박한 지식 전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생명대, 해양대와 공과대에서는 '높은 학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단과대학과 비교해 볼 때 사범대인 경우에는 '인생관에 대한 조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2) 원하는 강의방법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원하는 강의방법은 아래의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4-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7%의 학생들이 '강의 중심'의 강의방법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어서 '실험실습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1%, '토의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7%로 나타났다. '발표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모두 '강의 중심' 강의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비율은 여학생(51.8%)이 남학생(42.5%)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토의 중심' 수업방법(19.4%) 및 '사이버수업' 방법(9.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각각 15.7%, 4.4%)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 원하는 강의방법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강 의 중 심	175 (57.4)	104 (54.2)	144 (50.0)	66 (54.5)	329 (38.7)	87 (45.8)	127 (42.2)	104 (33.2)	6 (35.3)	416 (42.5)	426 (51.8)	842 (46.7)
발 표 중 심	13 (4.3)	7 (3.6)	7 (2.4)	5 (4.1)	2 (2.7)	7 (3.7)	6 (2.0)	6 (1.9)	-	29 (3.0)	24 (2.9)	53 (2.9)
토 의 중 심	64 (21.0)	47 (24.5)	68 (23.6)	21 (17.4)	9 (12.0)	25 (13.2)	47 (15.6)	35 (11.2)	3 (17.6)	190 (19.4)	129 (15.7)	319 (17.7)
실험실습 중심	43 (14.1)	19 (9.9)	49 (17.0)	25 (20.7)	28 (37.3)	46 (24.2)	100 (33.2)	135 (43.1)	8 (47.1)	252 (25.7)	201 (24.4)	453 (25.1)
사 이 버 수업	10 (3.3)	15 (7.8)	18 (6.3)	3 (2.5)	2 (2.7)	24 (12.6)	20 (6.6)	32 (10.2)	-	88 (9.0)	36 (4.4)	124 (6.9)
무 응 답	-	-	2 (0.7)	1 (0.8)	5 (6.7)	1 (0.5)	1 (0.3)	1 (0.3)	-	4 (0.4)	7 (0.9)	11 (0.6)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간의 반응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의 단과대학인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및 사범대에서는 원하는 강의방법을 '강의 중심' 강의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토의 중심' 수업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험실습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인문·사회계열의 단과대학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가치관 및 사회관 관련

1)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느끼고 있는 본인의 대인관계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5-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1.8%). 신입생의 22.6%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에 불과하였다.

<표 5-1>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원만한 편 이 다	29 (9.5)	24 (12.5)	45 (15.6)	12 (9.9)	11 (14.7)	30 (15.8)	25 (8.3)	32 (10.2)	2 (11.8)	124 (12.7)	86 (10.4)	210 (11.7)
원만한 편이다	194 (63.6)	106 (55.2)	186 (64.6)	80 (66.1)	36 (48.0)	105 (55.3)	183 (60.8)	185 (59.1)	8 (47.1)	568 (58.0)	515 (62.6)	1,083 (60.1)
그저 그렇다	70 (23.0)	50 (26.0)	41 (14.2)	26 (21.5)	16 (21.3)	42 (22.1)	79 (26.2)	78 (24.9)	5 (29.4)	216 (22.1)	191 (23.2)	407 (22.6)
원만치 않은 편 이 다	7 (2.3)	7 (3.6)	7 (2.4)	2 (1.7)	5 (6.7)	5 (2.6)	7 (2.3)	12 (3.8)	2 (11.8)	37 (3.8)	17 (2.1)	54 (3.0)
매우원만하지 않은 편 이 다	4 (1.3)	4 (2.1)	5 (1.7)	-	1 (1.3)	6 (3.2)	7 (2.3)	6 (1.9)	-	25 (2.6)	8 (1.0)	33 (1.8)
무 응 답	1 (0.3)	1 (0.5)	4 (1.4)	1 (0.8)	6 (8.0)	2 (1.1)	-	-	-	9 (0.9)	6 (0.7)	15 (0.8)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73.0%)이 남학생(70.7%)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원만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6.4%)들이 여학생(3.1%)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경상대(80.2%)였으며, 이어서 사범대 76.0%, 인문대 73.1%, 해양대 71.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의과대는 5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11.8%)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생명대 8.0%, 해양대 5.8%, 법정대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래의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5-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었다. 42.7%의 신입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적 안정을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32.2%, '좋은 인간관계 형성' 28.5%, '화목한 가정생활' 25.5%,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 24.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적인 삶'(2.4%)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삶'(2.45)이라는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로 46.7%의 남학생들이 경제적 안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좋은 인간관계 형성'(27.9%), '화목한 가정생활'(27.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38.0%, '좋은 인간관계' 2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은 단과대학에 따라 큰 차이 없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범대 및 의과대는 각각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및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120 (39.3)	85 (44.3)	135 (46.9)	29 (24.0)	30 (40.0)	85 (44.7)	130 (43.2)	152 (48.6)	4 (23.5)	457 (46.7)	313 (38.0)	770 (42.7)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	75 (24.6)	44 (22.9)	78 (27.1)	32 (26.4)	22 (29.3)	48 (25.3)	65 (21.6)	77 (24.6)	8 (47.1)	241 (24.6)	208 (25.3)	449 (24.9)
타인에게 봉사하는 생활	23 (7.5)	14 (7.3)	13 (4.5)	11 (9.0)	4 (5.3)	10 (5.3)	22 (7.3)	14 (4.5)	-	49 (5.0)	62 (7.5)	111 (6.2)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생활	15 (4.9)	11 (5.7)	10 (3.5)	5 (4.1)	10 (13.3)	18 (9.5)	17 (5.6)	7 (2.2)	-	58 (5.9)	35 (4.3)	93 (5.2)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109 (35.7)	56 (29.2)	85 (29.5)	58 (48.0)	20 (26.7)	37 (19.5)	100 (33.2)	109 (34.8)	6 (35.3)	243 (24.8)	337 (40.9)	580 (32.2)
화목한 가정생활	82 (26.9)	49 (25.5)	70 (24.3)	35 (28.9)	13 (17.3)	39 (20.5)	75 (24.9)	80 (25.6)	5 (29.4)	272 (27.8)	188 (22.8)	460 (25.5)
건강한 삶	57 (18.7)	41 (21.4)	47 (16.3)	17 (14.0)	9 (12.0)	42 (22.1)	62 (20.6)	68 (21.7)	5 (29.4)	206 (21.0)	142 (17.3)	348 (19.3)
종교적인 삶	9 (3.0)	6 (3.1)	8 (2.8)	5 (4.1)	-	7 (3.7)	6 (2.0)	3 (1.0)	-	23 (2.3)	21 (2.6)	44 (2.4)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삶	6 (2.0)	5 (2.6)	7 (2.4)	5 (4.1)	1 (1.3)	3 (1.6)	10 (3.3)	7 (2.2)	-	26 (2.7)	18 (2.2)	44 (2.4)
좋은 인간관계 형성	83 (27.2)	58 (30.2)	82 (28.5)	36 (29.8)	21 (28.0)	55 (28.9)	85 (28.2)	87 (27.8)	6 (35.3)	273 (27.9)	240 (29.2)	513 (28.5)

주 : 복수 응답

3) 대학생으로서 갖춰야할 자격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대학생으로서 갖춰야할 자격은 아래의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5-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대학에서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8.9%의 학생들이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인 순서는 차이가 없으나 응답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53.9%가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으로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다지기'라고 응답하였으며, 31.0%가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각각 47.8%와 27.2%로 나타났다. 그러

나 '첨단 지식을 습득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10.1%)이 여학생(4.0%)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학생으로 갖춰야할 자격이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다지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가 59.4%로 가장 높았고, 경상대 54.2%, 인문대 53.4%, 공과대 5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47.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범대 44.6%, 자연대 32.6%, 인문대 3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첨단지식을 습득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인문·사회계열 보다는 이공계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 대학생으로서 갖춰야할 자격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 대	법정 대	경상 대	사범 대	생명 대	해양 대	자연 대	공과 대	의과 대	남	여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	96 (31.5)	44 (22.9)	79 (27.4)	54 (44.6)	19 (25.3)	48 (25.3)	98 (32.6)	75 (24.0)	8 (47.1)	266 (27.2)	255 (31.0)	521 (28.9)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다지기	163 (53.4)	114 (59.4)	156 (54.2)	44 (36.4)	31 (41.3)	95 (50.0)	145 (48.2)	157 (50.2)	7 (41.2)	468 (47.8)	444 (53.9)	912 (50.6)
첨단지식을 습득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것	11 (3.6)	6 (3.1)	15 (5.2)	2 (1.7)	14 (18.7)	18 (9.5)	20 (6.6)	44 (14.1)	2 (11.8)	99 (10.1)	33 (4.0)	132 (7.3)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	19 (6.2)	26 (13.5)	27 (9.4)	11 (9.1)	4 (5.3)	16 (8.4)	20 (6.6)	24 (7.7)	-	84 (8.6)	63 (7.7)	147 (8.2)
많은 지식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14 (4.6)	2 (1.0)	6 (2.1)	10 (8.3)	2 (2.7)	12 (6.3)	18 (6.0)	11 (3.5)	-	52 (5.3)	23 (2.8)	75 (4.2)
무 응 답	2 (0.7)	-	5 (1.7)	-	5 (6.7)	1 (0.5)	-	2 (0.6)	-	10 (1.0)	5 (0.6)	15 (0.8)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4)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은 아래의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5-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55.4%의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으로 개인의 실력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력'이

라고 응답한 비율도 15.0%로 나타났다. '인간관계'(6.3%), '학벌'(5.9%) 또는 '가문 및 배경'(5.5%)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비교적 건전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실력 및 능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63.2%)이 남학생(48.9%)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17.1%)이 여학생(12.6%)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인간관계'라고 응답한 비율도 남학생(8.4%)이 여학생(3.9%)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실력 및 능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사범대로, 62.8%가 '실력 및 능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인문대 62.6%, 법정대 60.4%, 생명대 54.7%, 경상대 5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17.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자연대 16.3%, 사범대 15.7%, 경상대 15.3%, 해양대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 별	18 (5.9)	9 (4.7)	14 (4.9)	4 (3.3)	4 (5.3)	17 (8.9)	17 (5.6)	21 (6.7)	2 (11.8)	58 (5.9)	48 (5.8)	106 (5.9)
가문 및 배경	13 (4.3)	9 (4.7)	19 (6.6)	7 (5.8)	4 (5.3)	11 (5.8)	21 (7.0)	15 (4.8)	-	56 (5.7)	43 (5.2)	99 (5.5)
실력 및 능력	191 (62.6)	116 (60.4)	157 (54.5)	76 (62.8)	41 (54.7)	87 (45.8)	157 (52.2)	166 (53.0)	8 (47.1)	479 (48.9)	520 (63.2)	999 (55.4)
인 격	12 (3.9)	7 (3.6)	16 (5.6)	7 (5.8)	4 (5.3)	11 (5.8)	10 (3.3)	13 (4.2)	-	41 (4.2)	39 (4.7)	80 (4.4)
인 간 관 계	12 (3.9)	9 (4.7)	15 (5.2)	2 (1.7)	4 (5.3)	20 (10.5)	24 (8.0)	24 (7.7)	4 (23.5)	82 (8.4)	32 (3.9)	114 (6.3)
운	8 (2.6)	8 (4.2)	6 (2.1)	4 (3.3)	1 (1.3)	6 (3.2)	12 (4.0)	11 (3.5)	-	41 (4.2)	14 (1.7)	55 (3.1)
노 력	44 (14.4)	25 (13.0)	44 (15.3)	19 (15.7)	11 (14.7)	29 (15.3)	49 (16.3)	47 (15.0)	3 (17.6)	167 (17.1)	104 (12.6)	271 (15.0)
재 력	7 (2.3)	8 (4.2)	14 (4.9)	2 (1.7)	-	7 (3.7)	11 (3.7)	16 (5.1)	-	47 (4.8)	18 (2.2)	65 (3.6)
무 응 답	1 (0.3)	1 (0.5)	3 (1.0)	-	6 (8.0)	2 (1.1)	-	-	-	8 (0.8)	5 (0.6)	13 (0.7)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5)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반응은 아래의 <표 5-5>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5-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실업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33.0%), 이어서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한 비율이 21.1%,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비율이 18.1%, 그리고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1%로 나타났다.

<표 5-5>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경제성장	26 (8.5)	14 (7.3)	32 (11.1)	10 (8.3)	9 (12.0)	21 (11.1)	40 (13.3)	28 (8.9)	2 (11.8)	93 (9.5)	89 (10.8)	182 (10.1)
실업문제	100 (32.8)	62 (32.3)	77 (26.7)	36 (29.8)	22 (29.3)	60 (31.6)	95 (31.6)	137 (43.8)	6 (35.3)	327 (33.4)	268 (32.6)	595 (33.0)
빈부의격차	75 (24.6)	43 (22.4)	71 (24.7)	29 (23.3)	8 (10.7)	40 (21.1)	59 (19.6)	51 (16.3)	6 (35.3)	191 (19.5)	189 (23.0)	380 (21.1)
향락 및 사치문제	3 (1.0)	1 (0.5)	4 (1.4)	3 (2.5)	1 (1.3)	2 (1.1)	5 (1.7)	3 (1.0)	-	13 (1.3)	9 (1.1)	22 (1.2)
정치적 불안정	22 (7.2)	18 (9.4)	26 (9.0)	11 (9.1)	6 (8.0)	18 (9.5)	29 (9.6)	24 (7.7)	1 (5.9)	89 (9.1)	66 (8.0)	155 (8.6)
부정부패	47 (15.4)	38 (19.8)	60 (20.8)	23 (19.0)	16 (21.3)	32 (16.8)	51 (16.9)	57 (18.2)	2 (11.8)	187 (19.1)	139 (16.9)	326 (18.1)
청소년비행	4 (1.3)	1 (0.5)	1 (0.3)	1 (0.8)	1 (1.3)	5 (2.6)	6 (2.0)	1 (0.3)	-	16 (1.6)	4 (0.5)	20 (1.1)
환경오염	5 (1.6)	3 (1.6)	2 (0.7)	3 (2.5)	3 (4.0)	4 (2.1)	8 (2.7)	3 (1.0)	-	12 (1.2)	19 (2.3)	31 (1.7)
사회질서	11 (3.6)	6 (3.1)	4 (1.4)	3 (2.5)	-	1 (0.5)	3 (1.0)	4 (1.3)	-	19 (1.9)	13 (1.6)	32 (1.8)
국가안보	2 (0.7)	1 (0.5)	1 (0.3)	-	-	4 (2.1)	1 (0.3)	2 (0.6)	-	7 (0.7)	4 (0.5)	11 (0.6)
불신풍조	9 (3.0)	4 (2.1)	7 (2.4)	4 (3.3)	2 (2.7)	1 (0.5)	3 (1.0)	2 (0.6)	-	16 (1.6)	16 (1.9)	32 (1.8)
무응답	1 (0.3)	1 (0.5)	3 (1.0)	-	7 (9.3)	2 (1.1)	1 (0.3)	1 (0.3)	-	9 (0.9)	7 (0.9)	16 (0.9)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인 반응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공과대학과 생명대학을 제외한 다른 단과대학들은 신입생들이 응답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실업문제', '빈부의 격차', '부정부패'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과대와 생명대는 '빈부의 격차'보다는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6)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반응은 아래의 <표 5-6>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5-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005학년도

<표 5-6>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지역개발문제	116 (38.0)	80 (41.7)	106 (36.8)	43 (35.5)	30 (40.0)	64 (33.7)	87 (28.9)	109 (34.8)	5 (29.4)	360 (36.8)	280 (34.0)	640 (35.5)
청 소 년 비 행 문 제	5 (1.6)	6 (3.1)	5 (1.7)	2 (1.7)	2 (2.7)	21 (11.1)	10 (3.3)	13 (4.2)	1 (5.9)	50 (5.1)	15 (1.8)	65 (3.6)
농 업 문 제	22 (7.2)	22 (11.5)	17 (5.9)	14 (11.6)	10 (13.3)	19 (10.0)	24 (8.0)	36 (11.5)	-	111 (11.3)	53 (6.4)	164 (9.1)
교 통 문 제	5 (1.6)	2 (1.0)	8 (2.8)	4 (3.3)	3 (4.0)	9 (4.7)	18 (6.0)	9 (2.9)	-	34 (3.5)	24 (2.9)	58 (3.2)
환 경 보 존 문 제	11 (3.6)	8 (4.2)	5 (1.7)	5 (4.1)	3 (4.0)	17 (8.9)	8 (2.7)	15 (4.8)	-	45 (4.6)	27 (3.3)	72 (4.0)
문 화 시 설 의 낙 후 성 문 제	63 (20.7)	48 (25.0)	67 (23.3)	28 (23.1)	10 (13.3)	21 (11.1)	60 (19.9)	50 (16.0)	8 (47.1)	134 (13.7)	221 (26.9)	355 (19.7)
교 육 문 제	26 (8.5)	10 (5.2)	22 (7.6)	5 (4.1)	-	7 (3.7)	22 (7.3)	22 (7.0)	1 (5.9)	53 (5.4)	62 (7.5)	115 (6.4)
잘 모 르 겠 다	55 (18.0)	16 (8.3)	52 (18.1)	20 (16.5)	10 (13.3)	30 (15.8)	70 (23.3)	57 (18.2)	2 (11.8)	179 (18.3)	133 (16.2)	312 (17.3)
무 응 답	2 (0.7)	-	6 (2.1)	-	7 (9.3)	2 (1.1)	2 (0.7)	2 (0.6)	-	13 (1.3)	8 (1.0)	21 (1.2)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신입생들은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개발문제'를 들고 있다(35.5%). '문화시설의 낙후성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19.7%였고, '농업문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9.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한 비율도 17.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 교통문제 및 환경보존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여 모두에서 '지역개발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낙후성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26.9%)이 남학생(13.7%)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11.3%)이 여학생(6.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가 41.7%로 가장 높았고, 생명대 40.0%, 인문대 38.0%, 경상대 36.8%, 사범대 3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낙후성 문제'라는 응답은 의과대이 가장 높았고, 법정대 25.0%, 경상대 23.3%, 사범대 23.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 상담·봉사센터 관련

1) 대학생할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주요 상담원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대학생할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의논할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아래의 <표 6-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의논할 상대로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47.9%), 이어서 '형제 및 자매' 13.1%, '어머니' 12.5%, '혼자' 7.3%, '선배 및 후배'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봉사센터와 교외 상담기관을 찾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여 모두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51.9%)이 남학생(44.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형제 및 자매' 또는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형제 및 자매' 보다는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버지' 및 '혼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 대학생활 중 주요 상담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 버 지	15 (4.9)	5 (2.6)	17 (5.9)	11 (9.1)	2 (2.7)	18 (9.5)	25 (8.3)	26 (8.3)	1 (5.9)	95 (9.7)	25 (3.0)	120 (6.7)
어 머 니	44 (14.4)	15 (7.8)	39 (13.5)	10 (8.3)	13 (17.3)	22 (11.6)	48 (15.9)	30 (9.6)	4 (23.5)	97 (9.9)	128 (15.6)	225 (12.5)
형제 및 자매	33 (10.8)	31 (16.1)	42 (14.6)	21 (17.4)	7 (9.3)	23 (12.1)	36 (12.0)	39 (12.5)	4 (23.5)	112 (11.4)	124 (15.1)	236 (13.1)
친 척	6 (2.0)	1 (0.5)	1 (0.3)	1 (0.8)	-	4 (2.1)	5 (1.7)	9 (2.9)	-	17 (1.7)	10 (1.2)	27 (1.5)
친 구	159 (52.1)	101 (52.6)	140 (48.6)	56 (46.3)	24 (32.0)	89 (46.8)	136 (45.2)	152 (48.6)	7 (41.2)	437 (44.6)	427 (51.9)	864 (47.9)
선배 및 후배	21 (6.9)	11 (5.7)	22 (7.6)	11 (9.1)	8 (10.7)	7 (3.7)	28 (9.3)	21 (6.7)	-	81 (8.3)	48 (5.8)	129 (7.2)
교 수	7 (2.3)	2 (1.0)	3 (1.0)	3 (2.5)	5 (6.7)	5 (2.6)	5 (1.7)	7 (2.2)	1 (5.9)	28 (2.9)	10 (1.2)	38 (2.1)
상담·봉사센터	-	-	2 (0.3)	-	1 (1.3)	3 (1.6)	-	3 (1.0)	-	7 (0.7)	1 (0.1)	8 (0.4)
교외 상담기관	-	-	1 (0.3)	-	-	1 (.5)	2 (0.7)	1 (0.3)	-	4 (0.4)	1 (0.1)	5 (0.3)
혼 자	15 (4.9)	24 (12.5)	20 (6.9)	7 (5.8)	9 (12.0)	16 (8.4)	16 (5.3)	24 (7.7)	-	90 (9.2)	41 (5.0)	131 (7.3)
무 응 답	5 (1.6)	2 (1.0)	2 (0.7)	1 (0.8)	6 (8.0)	2 (1.1)	-	1 (0.3)	-	11 (1.1)	8 (1.0)	19 (1.1)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2) 상담·봉사센터에서의 상담 희망여부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상담·봉사센터에서의 상담 희망여부에 대한 반응은 아래의 <표 6-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수의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상담·봉사센터에서 상담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44.8%에 이르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필요할 경우 상담·봉사센터에서 상담을 희망하는 비율은 여학생(55.4%)이 남학생(52.0%)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을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

율은 남학생(46.3%)이 여학생(43.0%)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필요할 경우 상담 받기를 희망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사범대로 59.5%의 학생들이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자연대 58.1%, 경상대 55.6%, 공과대 5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법정대 49.0%, 의과대 47.1%, 인문대 4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대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 보다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상담·봉사센터에서의 상담 희망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받고 싶다	157 (51.5)	97 (50.5)	160 (55.6)	72 (59.5)	41 (54.7)	82 (43.2)	175 (58.1)	172 (55.0)	9 (52.9)	509 (52.0)	456 (55.4)	965 (53.6)
받고 싶지 않다	142 (46.6)	94 (49.0)	125 (43.4)	47 (38.8)	27 (36.0)	101 (53.2)	125 (41.5)	138 (44.1)	8 (47.1)	453 (46.3)	354 (43.0)	807 (44.8)
무 응 답	6 (2.0)	1 (0.5)	3 (1.0)	2 (1.7)	7 (9.3)	7 (3.7)	1 (0.3)	3 (1.0)	-	17 (1.7)	13 (1.6)	30 (1.7)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3) 받고 싶은 상담내용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받고 싶다고 응답한 상담내용은 아래의 <표 6-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담을 받을 경우 받고 싶은 내용이 취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1.4%), 이어서 학업 31.4%, 진학 28.7%, 대학생활 적응 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졸업 후의 진로 및 학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받고 싶은 상담내용은 '진학' 32.7%, '학업' 32.6%, '취업' 30.6%, '대학생활 적응' 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취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학업' 30.4%, '진학' 25.4%, '대학생활 적응'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취업에, 여학생은 진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취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공과대, 법정대, 경상대, 해양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업'은 인문대, 생명대, 법정대, 해양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 받고 싶은 상담 내용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대학생활 적응	64 (21.0)	28 (14.6)	57 (19.8)	28 (23.1)	13 (17.3)	27 (14.2)	63 (20.9)	68 (21.7)	9 (52.9)	179 (18.3)	178 (21.6)	357 (19.8)
학 업	109 (35.7)	62 (32.3)	87 (30.2)	34 (28.1)	26 (34.7)	61 (31.8)	88 (29.2)	95 (30.4)	4 (23.5)	298 (30.4)	268 (32.6)	566 (31.4)
성 (sex)	-	2 (1.0)	5 (1.7)	1 (.8)	4 (5.3)	11 (5.8)	5 (1.7)	7 (2.2)	-	32 (3.3)	3 (0.4)	35 (1.9)
취 업	95 (31.1)	63 (32.8)	94 (32.6)	35 (28.9)	20 (26.7)	61 (32.1)	87 (28.9)	113 (36.1)	4 (23.5)	320 (32.7)	252 (30.6)	572 (31.7)
이 성 문 제	1 (0.3)	11 (5.7)	9 (3.1)	1 (0.8)	1 (1.3)	6 (3.2)	7 (2.3)	11 (3.5)	-	43 (4.4)	4 (0.5)	47 (2.6)
진 학	88 (28.9)	60 (31.3)	90 (31.3)	35 (28.9)	16 (21.3)	44 (23.2)	85 (28.2)	93 (29.7)	7 (41.2)	249 (25.4)	269 (32.7)	518 (28.7)
성 격 및 정 서 문 제	19 (6.2)	16 (8.3)	15 (5.2)	9 (7.4)	8 (10.7)	12 (6.3)	23 (7.6)	19 (6.1)	1 (5.9)	73 (7.5)	49 (6.0)	122 (6.8)
대 인 관 계	27 (8.9)	14 (7.3)	25 (8.7)	14 (11.6)	5 (6.7)	21 (11.1)	28 (9.3)	36 (11.5)	3 (17.6)	105 (10.7)	68 (8.3)	173 (9.6)
인생 및 가치관 확립 문제	16 (5.2)	10 (5.2)	30 (10.4)	16 (13.2)	7 (9.3)	8 (4.2)	21 (7.0)	15 (4.8)	2 (11.8)	60 (6.1)	65 (7.9)	125 (6.9)
가정 및 가족 문제	4 (1.3)	6 (3.1)	4 (1.4)	2 (1.7)	1 (1.3)	8 (4.2)	3 (1.0)	1 (0.3)	-	18 (1.8)	11 (1.3)	29 (1.6)
경제적인 문제	9 (3.0)	16 (8.3)	14 (4.9)	7 (5.8)	3 (4.0)	15 (7.9)	27 (9.0)	11 (3.5)	-	61 (6.2)	41 (5.0)	102 (5.7)
음주 및 흡연	1 (0.3)	2 (1.0)	2 (0.7)	1 (.8)	1 (1.3)	8 (4.2)	3 (1.0)	5 (1.6)	-	18 (1.8)	5 (0.6)	23 (1.3)
시 간 관 리	17 (5.6)	17 (8.9)	22 (7.6)	7 (5.8)	5 (6.7)	7 (3.7)	29 (9.6)	23 (7.3)	1 (5.9)	65 (6.6)	63 (7.7)	128 (7.1)
외 모	3 (1.0)	5 (2.6)	5 (1.7)	3 (2.5)	-	4 (2.1)	4 (1.3)	4 (1.3)	-	17 (1.7)	11 (1.3)	28 (1.6)
기 타	9 (3.0)	3 (1.6)	16 (5.6)	4 (3.3)	1 (1.3)	8 (4.2)	12 (4.0)	8 (2.6)	-	35 (3.6)	26 (3.2)	61 (3.4)

주:복수 응답

4) 받고 싶은 심리검사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받고 싶어 하는 심리검사는 아래의 <표 6-4>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만약 받게 된다면 신입생들은 '적성탐색검사'를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흥미검사'(48.7%)와 '성격검사'(47.5%)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다수의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분야의 검사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인 순위는 차이가 없었지만, '적성탐색검사', '직업흥미검사'와 '성격검사'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65.0%, 54.3%, 53.0%)이 남학생(48.2%, 43.9%, 42.9%)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개념검사'와 '욕구진단검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적성탐색검사'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76.5%로 가장 높았고, 법정대 62.5%, 경상대 59.4% 인문대 5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흥미검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가 56.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생명대 52.0%, 경상대 51.4%, 공과대 5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검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70.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범대 52.9%, 경상대 51.4%, 인문대 5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명대 경우에는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직업흥미검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4> 받고 싶은 심리 검사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성 격 검 사	156 (51.0)	93 (48.4)	148 (51.4)	64 (52.9)	27 (36.0)	81 (42.6)	136 (45.2)	138 (42.5)	12 (70.6)	420 (42.9)	436 (53.0)	856 (47.5)
적성탐색검사	178 (58.4)	120 (62.5)	171 (59.4)	65 (53.7)	30 (40.0)	97 (51.0)	167 (55.5)	166 (53.0)	13 (76.5)	472 (48.2)	535 (65.0)	1007 (55.9)
욕구진단검사	42 (13.8)	41 (21.4)	51 (17.7)	23 (19.0)	9 (12.0)	39 (20.5)	54 (17.9)	56 (17.9)	2 (11.8)	181 (18.5)	136 (16.5)	317 (17.6)
자아개념검사	62 (20.3)	57 (29.7)	69 (24.0)	44 (36.4)	17 (22.7)	59 (31.1)	79 (26.2)	86 (27.5)	5 (29.4)	271 (27.7)	208 (25.3)	479 (26.6)
직업흥미검사	149 (48.9)	108 (56.3)	148 (51.4)	49 (40.5)	39 (52.0)	80 (42.1)	137 (45.5)	159 (50.8)	6 (35.3)	430 (43.9)	447 (54.3)	877 (48.7)
기 타	9 (3.0)	5 (2.6)	5 (1.7)	4 (3.3)	-	18 (9.5)	12 (4.0)	11 (3.5)	-	42 (4.3)	1 (0.1)	43 (2.4)
받고싶지않다	18 (5.9)	8 (4.2)	12 (4.3)	8 (6.6)	-	17 (8.9)	23 (7.6)	19 (6.1)	1 (5.9)	84 (8.6)	25 (3.0)	109 (6.0)

주:복수 응답

5)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2005학년도 신입생들이 응답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 6-5>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장 많은 신입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진로탐색 워크숍'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자기성장 프로그램'(25.3%)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18.6%)으로 나타났다.

<표 6-5>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동료상담 프로그램	28 (9.2)	9 (4.7)	28 (9.7)	9 (7.4)	3 (4.0)	15 (7.9)	24 (8.0)	21 (6.7)	4 (23.5)	78 (8.0)	63 (7.7)	141 (7.8)	
인지행동 프로그램	9 (3.0)	8 (4.2)	18 (6.3)	6 (5.0)	1 (1.3)	18 (9.5)	13 (4.3)	13 (4.2)	1 (5.9)	52 (5.3)	35 (4.3)	87 (4.8)	
가족기능증진 프로그램	6 (2.0)	7 (3.6)	8 (2.8)	5 (4.1)	2 (2.7)	9 (4.7)	9 (3.0)	17 (5.4)	-	42 (4.3)	21 (2.6)	63 (3.5)	
성과이성교제	2 (0.7)	5 (2.6)	6 (2.1)	2 (1.7)	4 (5.3)	12 (6.3)	10 (3.3)	14 (4.5)	1 (5.9)	47 (4.8)	9 (1.1)	56 (3.1)	
진로탐색 워크숍	106 (34.8)	73 (38.0)	102 (35.4)	27 (22.3)	18 (24.0)	51 (26.8)	75 (24.9)	103 (32.9)	5 (29.4)	277 (28.3)	282 (34.3)	559 (31.0)	
자기성장 프로그램	77 (25.2)	49 (25.5)	65 (22.6)	33 (27.3)	20 (26.7)	41 (21.6)	87 (28.9)	78 (24.9)	7 (41.2)	252 (25.7)	204 (24.8)	456 (25.3)	
현실치료 프로그램	10 (3.3)	1 (0.5)	6 (2.1)	3 (2.5)	2 (2.7)	6 (3.2)	14 (4.7)	8 (2.6)	-	23 (2.3)	24 (2.9)	47 (2.6)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57 (18.7)	45 (23.4)	55 (19.1)	26 (21.5)	12 (16.0)	25 (13.2)	53 (17.6)	56 (17.9)	2 (11.8)	145 (14.8)	190 (23.1)	335 (18.6)	
가치명료화 프로그램	4 (1.3)	4 (2.1)	10 (3.5)	12 (9.9)	3 (4.0)	2 (1.1)	9 (3.0)	6 (1.9)	1 (5.9)	36 (3.8)	15 (1.8)	51 (2.8)	
멘토링 프로그램	1 (0.3)	1 (0.5)	2 (0.7)	1 (0.8)	1 (1.3)	2 (1.1)	4 (1.3)	2 (0.6)	-	6 (0.6)	8 (1.0)	14 (0.8)	
지압교실	8 (2.6)	5 (2.6)	11 (3.8)	6 (5.0)	3 (4.0)	2 (1.1)	14 (4.7)	5 (1.6)	1 (5.9)	19 (1.9)	37 (4.5)	56 (3.1)	
수화교실	11 (3.6)	6 (3.1)	4 (1.4)	2 (1.7)	2 (2.7)	7 (3.7)	12 (4.0)	7 (2.2)	1 (5.9)	31 (3.2)	26 (3.2)	57 (3.2)	
기 타	-	-	1 (0.3)	-	-	-	-	-	-	1 (0.1)	-	1 (0.1)	

주:복수 응답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여 모두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진로탐색 워크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34.3%)이 남학생(28.3%)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5.7%)이 여학생(24.8%)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진로탐색 워크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법정대(38.0%)였고, 경상대 35.4%, 인문대 34.8%, 공과대 32.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41.2%로 가장 높았고, 자연대 28.9%, 사범대 27.3%, 생명대 26.7%, 법정대 25.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범대 21.5%, 경상대 19.1%, 인문대 18.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 사회봉사활동 참여의사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의사는 아래의 <표 6-6>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70.1%).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8.1%에 불과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2%로 남학생의 61.6%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37.1%)이 여학생(17.5%)에 비해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6-6> 사회봉사활동 참여의사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있 다	244 (80.0)	141 (73.4)	203 (70.5)	105 (86.8)	55 (73.3)	108 (56.8)	204 (67.8)	189 (60.4)	14 (82.4)	603 (61.6)	660 (80.2)	1,263 (70.1)	
없 다	54 (17.7)	50 (26.0)	81 (28.1)	16 (13.2)	11 (14.7)	80 (42.1)	91 (30.2)	122 (39.0)	2 (11.8)	363 (37.1)	144 (17.5)	507 (28.1)	
무 응 답	7 (2.3)	1 (0.5)	4 (1.4)	-	9 (12.0)	2 (1.1)	6 (2.0)	2 (0.6)	1 (5.9)	13 (1.3)	19 (2.3)	32 (1.8)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사범대로 86.8%의 신입생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의과대 82.4%, 인문대 80.0%, 법정대 73.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공과대 39.0%, 자연대 30.2%, 경상대 28.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2005학년도 신입생들 중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선택한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은 아래의 <표 6-7>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회봉사활동은 '업무보조'(21.8%), '단순 노력봉사'(20.7%), '재가복지'(20.0%), '학습 또는 생활지도'(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7>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단순 노력봉사	48 (19.7)	28 (19.9)	44 (21.7)	15 (14.3)	14 (25.5)	28 (25.9)	40 (19.6)	40 (21.2)	4 (28.6)	132 (21.9)	129 (19.5)	261 (20.7)
업 무 보 조	50 (20.5)	33 (23.4)	45 (22.2)	22 (21.0)	10 (18.2)	19 (17.6)	34 (16.7)	60 (31.7)	2 (14.3)	148 (24.5)	127 (19.2)	275 (21.8)
학 습 또 는 생 활 지 도	37 (15.2)	19 (13.5)	31 (15.3)	30 (28.6)	6 (10.9)	12 (11.1)	25 (12.3)	5 (2.6)	3 (21.4)	79 (13.1)	89 (13.5)	168 (13.3)
프 로 그 램 진 행 및 보 조	11 (4.5)	9 (6.4)	14 (6.9)	3 (2.9)	5 (9.1)	10 (9.3)	20 (9.8)	12 (6.3)	-	39 (6.5)	45 (6.8)	84 (6.7)
재 가 복 지	51 (20.9)	33 (23.4)	44 (21.7)	28 (26.7)	9 (16.4)	21 (19.4)	38 (18.6)	28 (14.8)	-	94 (15.6)	158 (23.9)	252 (20.0)
상 담 봉 사	10 (4.1)	10 (7.1)	12 (5.9)	4 (3.8)	4 (7.3)	8 (7.4)	12 (5.9)	12 (6.3)	2 (14.3)	30 (5.0)	44 (6.7)	74 (5.9)
전 문 기 술 봉 사	23 (9.4)	3 (2.1)	8 (3.9)	1 (1.0)	5 (9.1)	3 (2.8)	23 (11.3)	21 (11.1)	3 (21.4)	50 (8.3)	40 (6.1)	90 (7.1)
기 타	14 (5.7)	5 (3.5)	5 (2.5)	2 (1.9)	2 (3.6)	5 (4.6)	11 (5.4)	10 (5.3)	-	26 (4.3)	28 (4.2)	54 (4.3)
무 응 답	-	1 (0.7)	-	-	-	2 (1.9)	1 (0.5)	1 (0.5)	-	5 (0.8)	-	5 (0.4)
계	244 (100)	141 (100)	203 (100)	105 (100)	55 (100)	108 (100)	204 (100)	189 (100)	14 (100)	603 (100)	660 (100)	1,263 (100)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은 '재가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23.9%), 이어서 '단순 노력봉사' 19.5%, '업무보조' 19.2%, '학습 또는 생활지도'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업무보조'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단순 노력봉사' 21.9%, '재가복지' 15.6%, '학습 또는 생활지도' 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업무보조'라고 응답한 비율은 공과대가 31.7%로 가장 높았고, 법정대 23.4%, 경상대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 노력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의과대(28.6%)였으며, 해양대 25.9%, 생명대 25.5%, 경상대 21.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가복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범대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습 또는 생활지도'라고 응답한 비율도 사범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8)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는 아래의 <표 6-8>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로 나타났다.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수강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수강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은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는 반응이 53.3%로 남학생(40.6%)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8>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있 다	163 (53.4)	93 (48.4)	135 (46.9)	74 (61.2)	35 (46.7)	73 (38.4)	128 (42.5)	130 (41.5)	13 (76.5)	397 (40.6)	447 (53.3)	844 (46.8)
없 다	132 (43.3)	95 (49.5)	147 (51.0)	46 (38.0)	30 (40.0)	113 (59.5)	164 (54.5)	181 (57.8)	3 (17.6)	561 (57.3)	350 (42.5)	911 (50.6)
무 응 답	10 (3.3)	4 (2.1)	6 (2.1)	1 (0.8)	10 (13.3)	4 (2.1)	9 (3.0)	2 (0.6)	1 (5.9)	21 (2.1)	26 (3.2)	47 (2.6)
계	305 (100)	192 (100)	288 (100)	121 (100)	75 (100)	190 (100)	301 (100)	313 (100)	17 (100)	979 (100)	823 (100)	1,802 (100)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76.5%), 사범대(61.2%), 인문대(53.3%)는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양대(59.5%), 공과대(57.8%), 자연대(57.8%), 경상대(51.0%)는 사회봉사 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조사는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일반적 사항,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 대학생활, 대학의 이미지와 자긍심, 학과 선택의 과정 및 교수 등과의 관계, 가치관과 상담·봉사센터의 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여 향후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연구 및 행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조사는 ① 개인 및 가정생활, ② 대학생활, ③ 대학 및 학부(과) 선택, ④ 기대하는 교수상 및 대인관계, ⑤ 가치관 및 사회관, ⑥ 상담·봉사센터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제주대학교의 2005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 중 설문에 응답한 1,843명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41명을 제외한 1,80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2004년 이전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설문응답들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들의 대부분은 '86년 이후에 출생하였으며('86년생 71.1%, '87년 이후 출생 18.9%), 재수를 경험한 비율은 9.3%에 불과하였다(사범대는 재수 비율이 28.5%). 신입생의 다수는 제주도 출신으로(91.1%, 부산·경남 지역은 3.1%), 본가에 거주하려는 학생들이 많았다(69.1%). 신입생의 보호자들은 대부분은 부모였고(93.1%), 부모 모두가 생존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84.9%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학력은 고졸(58.5%)이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은 37.1%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직업은 3차 산업(50.8%)이 가장 많았고(1차 사업은 20.55),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가정이 화목하다고 응답하였다(82.2%). 또한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 대체로 편안함을 느끼고(83.0%), 학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86.8%), 대부분 자녀들의 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6.8%). 그리고 신입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심리 및 정서적 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2.8%)

둘째, 신입생들의 대학진학의 주된 목적은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6.9%),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전공공부(34.1%)와 대인관계 형성(26.0%)이라고 응답하였고,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진로에 대한 방향 세우기'로 나타났다(37.2%). 또한 신입생의 대부분은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80.2%), 용돈 마련을 위해(64.6%)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2.6%). 장래 갖고 싶은 직종으로는 공무원(32.7%)과 교사(19.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64.1%) 대부분의 신입생(90.7%)들은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는 '취미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50.2%),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입학 전 제주대학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신입생들이 더 많았고(52.8%), 본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취향과 적성'(31.8%), '합격 가능성'(20.65) 및 '취업전망'(20.5%)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망학부(과)는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에 선택한 경우가 많았으며(43.7%), 입시정보는 주로 대학 홈페이지(32.5%), 신입생 모집요강(23.0%) 및 진학 지도교사(20.2%)를 통해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의 절반이상은 본교에 대해 어느 정도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으며(52.8%), 자신이 입학한 모집단위가 자신의 적성 및 취향에 맞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4.8%). 또한 신입생들은 대부분 전과제도(78.5%)와 복수전공 제도(67.7%)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취업 기회의 확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41.1%).

넷째, 신입생들은 교수에게 '해박한 지식 전달'(24.3%) 및 '진로지도'(19.3%)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토의나 실습 중심의 강의방법 보다는 '강의 중심' 강의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7%).

다섯째, 신입생의 대부분은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71.8%), 대학에서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0.6%). 또한 신입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42.7%) 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32.2%)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력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5.4%). 신입생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업문제'(33.0%)와 '빈부 격

차'(21.1%)였으며, 제주도의 문제점으로는 '지역개발문제'(35.5%)와 '문화시설의 낙후성'(19.7%)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신입생들은 대학생활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주로 '친구'와 주로 의논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47.9%), 절반이상은 필요할 경우 상담·봉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53.6%). 상담·봉사센터에서 받고 싶어 하는 상담은 취업(31.4%), 학업(31.4%) 및 진학(28.7%)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적성탐색검사(55.9%), 직업 흥미검사(48.7%) 또는 성격검사(47.5%) 등의 심리검사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신입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로탐색 워크숍(31.0%), 자기성장 프로그램(25.3%) 또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18.6%)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수의 학생들은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70.1%), 주로 업무보조(21.8%), 단순 노력봉사(20.7%), 재가 복지(20.0%)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50.6%로 나타났다.

2. 결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내린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진로상담의 강화가 필요하다.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입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취업' 또는 '진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유도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이며,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전과 또는 복수전공 희망, 그리고 상담·봉사센터에서 받고 싶은 상담내용 및 심리검사도 모두 취업, 또는 진학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신입생들의 관심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해서는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취업 및 진학관련 상담 및 심리검사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원 내의 타 부서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상담·봉사센터의 취업관련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기회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신입생의 대부분은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결국 취업상의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예산지원 확대 및 학교 차원의 예산확보를 통해 해외연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 및 교직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공무원 및 교직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공무원 및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보수집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

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원내 취업지원부 및 국가고시지원부의 역할 강화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제주대학교의 현행 입시 홍보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대학교에서는 수시로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본교에 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진학지도 담당교사 등을 통해 얻었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 파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입시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대학 및 학과 홍보를 통해 신입생들의 학과 선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다섯째, 본교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학생들의 자긍심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05학년도 신입생 중 본교에 자긍심을 느끼는 학생들은 52.8%에 불과하였고, 43.4%의 학생들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자긍심을 느끼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본교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상담·봉사센터를 학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학생들이(44.8%) 상담·봉사센터에서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였는데, 전문가들에 의한 다양한 자료 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 문제 해결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충원 및 각종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끝으로,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신입생 실태조사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만으로는 재학생 전체의 성향 및 행동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따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학생관련 자료수집 및 상황 판단을 위해 신입생 실태조사와 함께, 여러 가지 학생 생활과 관련 실태조사 연구의 실시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두화 (2005). '2004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6집.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 소황옥, 전철은, 이호웅 (2004). '2004 신입생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11. 1-36.
- 세계일보 (2004). 대학구조조정 해외 사례. 2004. 9. 6.

<Abstract>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Freshmen in 2005

Kim Doo-hwa, Park Jong-pil, Park Jung-hwan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collect basic data on freshmen in 2005 and to understand students' general matters for make substantial measures on academic affairs in our university.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composed a questionnaire (on students' current conditions, values, university life etc) based on earlier surveys and distributed and collected during the orientation period of . 1802 students are answered the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suggest that :

1. It needs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to take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When asked main concerns, most students answered that their main concern or interest is 'getting a job' or 'entering a school of higher grade'. Also they answered that the reason to enter the university is to find more prospective job and want to take counseling service on 'getting a job' or 'entering a school of higher grade'. Thus, to meet their needs, it needs to increase the opportunity to take psychological tes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with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related university offices.
2. It needs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of oversea training for students. Most of the students had a positive image on the oversea training and these experience is directly related with students' competitiveness in job markets. Thus, it needs to take supportive steps to collect sufficient fund for the oversea training.
3. It needs to support students who want to be a public official or teacher. Most of the students preferred to be a public officer or teachers, so that the university should

take some measures to support these students.

4. The current strategy for university advertisement should be reappraised. Cheju National University holds several expositions for highschool graduates to advertise the university, but it revealed that these expositions are not effective because many students replied that they found useful information through university's homepage, highschool teachers. Thus, the university should change current strategy based on exposition for highschool students and make more effective plans for advertising departments and the university.
5. The university should take some measures to increase students' pride which is related to the university. 52.8% of the students replied that they are proud of the university, but 43.4% of the students replied that they are not.

Finally, the university collect data only from freshmen, and results from these data analysis have some limitation to understand all students in the university. Thus, to get more accurate information and to make more effective decision making, the survey should extended to all students in the university.